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야생차로 만듭니다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영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7월 19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계으름은 온갖 악의 근본이요, 부지런함은 온갖 선의 근원이다.

〈법구경〉

법회 안내

용인 동도사 (0335)33-7417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인등법회 매월 12일(음) 오전11시
정기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1시
지장재일법회 매월 18일(음)

호국 득도사 (0338)71-2295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관음재일법회 매월 24일(음)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9시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자비법회 매주 일 오후7시30분
수요법회 매주 수 오후7시30분

청주 한마음선원(0431)27?-6946
정기법회 둘째 일 오전10시30분
교리법회 매주 목 오전10시30분
법형재법회 매주 수 오후7시
심근화법회 매월 첫째 화 오후2시
심일화법회 둘째 화 오전10시30분
심선화법회 넷째 화 오전10시30분

내원암 (051)508-5165
능가 노스님법회 매월 1일(양) 오전 10시30분

태종사(051)414-2626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혜원정사 (051)866-7772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오전10시
초사흘법회 매월 3일(음)오전10시
지장재일법회 매월 18일(음)
관음재일법회 매월 24일(음)

정수사 (051)758-6022
정기법회 매월 1~3일(음)오전10시
월요법회 매주 월 오전10시
백중 · 참회법회 매주 금 오후5시
보름기도법회 15일(음) 오전10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혹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성보전시관 국고 보조 '차질'

재경원, 예산 기각 … 조계종 본사주지 회의등 대책 마련

사찰유물전시관(성보 전시관) 건립에 대한 국고 보조예산이 재정경제원의 예산 심의에서 전면 기각된 것으로 알려져 성보전시관 건립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재경원 예산실이 문화재 관리국에서 제출한 성보전시관 건립 국고보조액 예산 40억원을 심의 이를 전면 기각시켰음을 통보받은 조계종 총무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통감, 오는 19일 교구본사주지회의를 긴급 소집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문화재 관리국은 현 상태로는 사찰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파악, 지정문화재가 9점이상 소장되어 있는 조계사 용주사 월정사 해인사 수덕사 마곡사 금산사 선운사 등 8개 본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 40억원 국고지원, 시·도의 지방비 40억원, 사찰 부담 40억원 등으로 예산을 세우고 내년 국가 예산에 편성했었다.

"대통령 · 문체부장관과의 면담때 성보전시관 건립시 예산 및 기술 지원을 약속 받았다"고 밝힌 원주 총무원장은 조만간 재경원 장관을 만나 성보전시관 건립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예산 책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7월13일 현재).

종단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생계와 직접 관계없는 부문의 예산은 깎여진 것이 관례"라며 "하지만 2차 심의때 그 중요성이 부각,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낙관했다.

한편 성보전시관 국고 보조 기각 소식을 들은 교계 관계자들은 "우리 문화재의 80%가 불교문화재이고 굴뚝없는 산업으로 각광받는 관광 대상의 첫째가 사찰 문화재라는 점을 누구도 부인못한다고 할 때 이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성보전시관 건립은 불교계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긴급 과제"라며 8개 사찰뿐 아니라 전 교구본사에 성보전시관이 세워질 수 있는 국가 예산 반영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경숙 기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것이 확실한 석굴암 본존불.

석굴암·팔만대장경·종묘 세계문화유산 지정 '확실'

석굴암(국보 제24호), 해인사 팔만대장경 및 관고(국보 제32·52호), 종묘(사적 제125호) 등 3건의 문화재가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 12일 문체부에 따르면 최근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위원회 집행이사회가 이를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으로 건의, 오는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19차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 지금까지 집행위 건의는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지는게 관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훼손 방지와 영구 보존을 위한 국제적인 기술·재정 지원을 받고, 인류공동의 문화유산임을 상징하는 유네스코 제정 휘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94년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모두 4백40건.

〈본지 17호 1 · 13면 참조〉



애타는 기원 '삼풍백화점 희생자 및 실종자 상봉을 위한 기원법회'가 실종자 대책본부가 있는 서울교육대학 합동강의실에서 지난 13일 봉행됐다. 애잔한 국악향기속에 불교 전통의식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가족들은 실종자들의 빠른 상봉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21세기 포교청사진 나왔다

조계종, 신도교육 등 10개부문 1백 과제 발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포교청사진이 수립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스님)은 지난 10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포교청사진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1백년간의 불교전망과 포교과제를 제시했다. 〈본지 23호 1면 참조〉

포교원이 마련한 포교청사진은 △인류문명의 전망과 불교의 지향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한국사회의 전망 △한국불교의 현황과 과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포교의 과제등 6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포교원은 포교청사진을 통해 먼저 신도교육, 사찰운영, 포교조직등 10개 부문에 걸쳐 1백대 과제를 선정,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1차 5개년 주요사업계획표를 마련해 앞으로 포교청사진에 따라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포교원장 정락스님은 "위기에 처한 인류세계를 불자들의 바른 신행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서원에 따라 포교청사진을 마련했다"며 포교청사진의 원만성취를 위해 △포교원 실무역량 강화 △중앙신행단체 활성화와 역할 증대 △포교재원 확보 △포교공간 마련 △중앙종무기관의 지원 협조체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교원이 마련한 포교청사진은 94년 9월 개혁회의가 종단포교의 거시적이고 안정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연 3백여명의 포교전문가를 초청, 총 22회의 세미나를 거쳐 수립, 이번에 최종 발표됐다.

"생명존중정신 확립"

월주스님 '삼풍' 성명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 지난 12일 12시 조계사 법당에서 시국성명서를 발표하고 희생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비는 한도재 2재를 봉행했다.

성명서를 통해 월주스님은 생명존중과 인간중심의 가치관이 확립되는 공동체 사회를 위한 기업가들의 사회윤리회복과 공직자들의 일대 반성,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성명서 요지 3면〉

목어

참으로 공교로운 일이었다.

삼풍참사 현장,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최명석군(20)과 유지환양(18)의 '기적의 생환'에는 너무도 유사점이 많았다.

'나는 살 수 있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 기다리고 있으면 구해 주겠지. 죽는다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다.'

X세대인 그들은 둘다 확고한 자기신념과 의지로 지옥에서의 11일 그리고 13일을 견디어 냈다. 그 힘은 흔들림없는 '믿음'이었다.

그들은 또 죽음에 대한 공포앞에서 한결같이 부모와 가족을 떠올렸다.

'기적의 꽃' 피운 믿음

"무서울 때는 희망을 잃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이 생각나 마지막 순간까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지에서 지환양을 버티게 한 어머니의 광소 가르침. 남편의 지병을 간병하며 꿋꿋하게 살아온 지환양의 어머니. 정보살의 가슴에는 부처님이 계셨다. 그 믿음은 딸에게 연결되어 있었다.

최명석군 가족들의 믿음도 최군과 교감하고 있었다. 부모와 6남1녀의 형제, 숙부와 외삼촌까지 20명의 가족구조팀은 자원봉사대원으로 나섰다.

'꼭 살아 있을 것'이란 확신을 갖고 차분히 봉사대열에 선 최군 가족들의 모습과 이야기는 최군 생환의 기쁨이상으로 국민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남겼다.

우리는 그 참사현장의 주인공이 되었을때 과연 어떠했을까. 한번쯤 자기대입을 해보면서 두 젊은이와 그 가족들이 피운 '기적의 꽃'에서 믿음의 의미와 가족사랑의 힘을 되새겼으면 좋겠다. 법구경의 한 구절과 함께.

"자기아말로 자신의 주인 자기아말로 자신의 의지할 곳, 자기 자신을 잘 다루라."

'소쩍새'승가대 부설추진 14면
송광사 성보는 어디에 15면
삼풍대참사 기적의 두 주인공 16면

曉星그룹 신뢰받는 기술

"한국산업발전의 견인차 — 효성중공업"
종합중전기에서 첨단기술산업까지

효성중공업의 생산제품 소개
●중전기기 및 송변전 설비 : 초고압 송변전 설비, 초고압 변압기, 배전 변압기, 유입, SF_6GAS, 건식, Mold, Amorphous, 초고압 GIS, GCB, DS, 각종 배전반, 종합기 및 변전설비, 철탑, 철구조물 ●산업용 기기및 설비 : 펄프 감속기, 송풍기, 크레인, 수문, 각도, 산업설비, 환경보전 및 수처리설비, 각종기계장치, 화학장치, 주차설비 ●회전기기 : AC전동기, DC전동기 및 Dr ve System, 방폭형 전동기, AC써보모터, 브레이크 모터, CLS전동기, 발전기, 각종 특수전동기 및 전동기 기동장치 ●전력전자 및 FA : 자동창고, UPS, 프로그래머블 콘트롤러(PLC), 수·배전반 전력 감시제어장치, 분산형 제어 시스템 계장설비, 각종 콘트롤러, 고품전자 접촉기, 개폐기(MC,M/S), 배선용 차단기(NFB), 진공차단기(VCB) ●건설 : 효성빌라, 주택건설, 각종 건축 공사



효성중공업주식회사
HYOSUNG INDUSTRIES CO., LTD.

사 설

포교 청사진에 박수 보내며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은 21세기를 맞이하여 한국의 불교를 중흥시키기 위한 포교청사진을 발표했다. 장편의 포교청사진에는 인류문명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불교의 역할과 접근방법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다가올 세계의 변화와 한국불교의 현실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장·단점을 다각도로 조명한 것은 아픔없이는 새로운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준다.

지난해 4월 조계종의 개혁의지가 천명된 이래 그동안 소리없이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자 한다. 한국불교는 천 칠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그동안 조상의 문화유산이나 얼을 팔아먹는데 급급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보여준 불교의 지리멸렬은 생각만 해도 안타깝다. 해방 이후 비구·대처의 분쟁과 그로인한 분종, 이후 연중행사처럼 발생한 종권분쟁 등으로 인하여 뜻있는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자아냈으며, 민족종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성인들의 우려도 자아냈다.

조계종의 방황은 종단의 발전을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잠재력을 사회에 투영하지 못하므로써 이 시대에 필요한 사회문화의 창출을 가져오지 못하였고 외국의 사조가 국내에 범람하게 된 한 요인이 되었다고도 본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한 종합보고서가 나온 것은 만시지탄의 느낌은 있지만 매우 뜻깊은 일임에 틀림없다. 문화적 열등감에서 벗어나 21세기 세계문명의 한 축을 불교가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작업을 뜻있는 이들이 주축이 되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만들었다는 점에 감사와 희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러한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질적이면서도 조직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야 한다. 하여 다가오는 21세기 문명을 주도할 수 있는 불교가 될 수 있도록 접근 전략과 방법이 보다 세밀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범종단적인 지원체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것을 계기로 세계문명의 흐름과 한국불교의 진로를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방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전문연구원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남북 종교교류 제재 '유감'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던 남북한의 종교교류가 소강상태에 빠져있다. 지난 1~5일 일본의 도쿄에서 남한측의 태고종 총무원장 서봉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법타스님 등은 방북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북한측의 조선불교도연맹 부위원장 황병대, 상무위원 류성철 등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남한측 대표들의 불참으로 베이징에서 합의된 남북한 상호방문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다.

특히 도쿄회의는 남한측 대표단의 출국직후에 남북접촉불허방침을 정부가 긴급 통보하므로써 남한측 대표들이 회의에 불참하는 사태를 야기, 북한측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이달말로 예정돼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방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11일 "방북을 추진중인 조계종의 월주 총무원장과 천주교의 김수환추기경이 아직 북한측의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이들 종교지도자들의 방북성사가 불투명한 실정"이라 밝혔다. 이것은 북한측의 소극적 태도와 남한 정부의 지원 역시 부족한 때문이라 보는 것이 종교계 일반의 견해다.

우리는 남북 종교인의 교류, 특히 남북불교인의 교류가 정치성을 띠는 것에 반대한다. 또한 당국의 지나친 통제로 인해 남북불교교류가 활발하게 성사되지 못하는 것에도 우려를 금치 못한다.

세계는 바야흐로 급변하고 있으며,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21세기는 세계문명의 중심축이 극동아시아로 옮겨오리라는 세계 석학들의 전망과 새로운 문명의 추구는 남북의 통일을 더욱 간절하게 하고 있다.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는 순수한 종교간의 교류를 통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21세기 세계문명의 커다란 조류에 동참하여 한민족의 항구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제 정부나 북한 당국은 대승적 차원에서 통일 이후를 준비해야할 때이며, 순수한 종교간의 교류는 오히려 장려되어야 하리라 본다. 무엇이든 이해를 따지면 안된다. 그저 민족애가 필요할 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총무원장의 방북 무산이 예견되는 점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마당

사이비 승 근절

혜 창 스님



일력처럼 스님도 아니면서 승려행세를 하는 사이비·유랑객승들이 여비나 약값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피해사찰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호법부 직원들이 즉각 출동해 단속을 펴 왔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 근교에서는 사이비·유랑객승들의 비리가 많이 근절되었지만 여름 행락철을 맞아 더욱 성행할 우려가 있는 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승려사칭 행위 지속 단속
종단협 차원 공동대책 필요

사이비 승려에 대한 본 호법부의 조사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사법권이 없는 것과 조계종 소속 승려외에는 규제·징계·단속의 권한이 없는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타종단과 연대할 수 있는 종단협 차원의 공동대책이 필수적이며 관계기관(문체부, 경찰청, 관할구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승복을 수하고 승려를 사칭해도 제재할 수 있는 법근거나 권한이 없으므로 승복을 특허출원하거나 성직자를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용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조계종 호법부장〉

임효정



MBC TV의 '소쩍새 마을의 진실'은 나뿐 아니라 주위의, 소쩍새 마을에 작지만 정성어린 성금을 보내주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우리가 '소쩍새 마을'에 성금을 보내고 자원봉사를 하고 한 것은 물론 그곳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스님'이 장애아·정박아·노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지 일을 하였기에 더욱 믿고 동참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 일이 더욱 가슴 아프다.

종단 승적관리 강화로
또다른 '일력' 생기지 않도록

'일력'이 스님이 아닌 사이비 승이라고 보도되었지만 종단에서는 차제에 승적관리라든가 스님되는 일을 철저히 관리해 우리같은 재가인이 더이상 신심에 상처입지 않았으면 한다.

'일력' 사건으로 일부 복지단체 후원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아프다. '일력' 사건을 계기로 남에게서 받은 보시금 쓰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신중해야 하는 일인지 모두들 각별히 반성해 보았으면 한다.

〈경불련 여성부위원장〉

사이비 승 조심하자 군소종단 승적갖고 '불자 우롱'

조계종 호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탁발·불법 유랑객승 등 사이비 승 중에는 ㅇ, ㅊ, ㅂ, ㅈ종 등 군소종단 승적을 갖고 있거나 조계종에서 멀빈된 자, 승려도 아니면서 가짜로 머리깎고 승복입은 자가 태반.

건강식품 강매 사이비 승들에 의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상품판매 행위이다. 각 시·도의 주민의 날 행사나 체육대회 등 대단위 행사장에 나타난 조계종 복장의 승려와 난장이 등 3~4명이 감언이설로 스쿠알렌 등 건강식품을 팔고 있다. 승려복장의 이 사람들은 자기가 불교한방병원에도 관여하고 있고 사찰 불사를 도와달라며 20~30만원 하는 건강식품을 팔고 있다.

인도에서 공부하고 특이한 영을 받아 부적을 만들었다는 거짓말로 1개에 만원씩 받고 '만사형통부적'까지 팔고 있는 실정.

탁발승 신세계 앞이나 명동의 제일 백화점, 동대문역, 서울역, 청량리역, 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보시함을 앞에 놓고 목탁을 치며 시주를 요구하는 탁발승을 흔히 만나는데 이들은 속칭 '탁발종'에 소속된 가짜 승려들. 지역 폭력배와 연계됐다고 알려진 이들은 출퇴근하며 탁발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7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품요구 또 대구·경남북 등의 이름난 방생처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한 방생버스에 어김없이 승려복장의 사람들이 나타나 부적이나 연고약을 강요 판매해 불자들이 시달리고 있다. 00불사하니 도와달라, 복지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옷을 보내달라거나 금품을 요구, 구좌번호까지 알려 주며 보시를 강요하고 있다.

과거 탁발은 수행의 일부분이었고 유랑·만행행위도 그 자체가 수행의 한 과정으로 삼아왔는데 현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불가의 전통적인 수행과 미덕이 변질되고 있고, 따라서 조계종은 탁발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비 승려의 탁발·상품판매행위·보시강요 등 불법행위를 목격할 시는 (02)735-1769, 5865(호법부)로 신고를 바라고 있다.

현대만평 박 구 원



"제발이 저리십니까"

시 론

혹시 무너지면 어쩌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은 '돈'이면 제일이라는 물질만능의 전도된 사회의식이 빚어낸 허상과 허무의 드라마이다.

이 세상에 원인없는 결과란 없다. 설계에서 지반공사 그리고 시공과 감리, 또 수없이 뒤바뀐 설계변경 거기에 더하여 가사용 승낙 그리고 준공검사 또 다시 증측으로 이어지는 행위들이 '건물붕괴의 원인이요 결과인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전직 서초구청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의 뿌리깊은 유착등은 원인에 원인을 더하여 이 사회에 구조적 모순을 이루어왔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자 다음은 아파트 차례라는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장안에 유행했다. 신문과 방송도 일산·중동·분당·평촌 등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부실공사의 흔적들을 다투어 보도했다. 유언비어에 근거를 보태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때문일까, 국민들의 불안 심리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백화점, 호텔, 기타 고층빌딩에 들어가는 것조차 꺼린다고 한다. 혹시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외국의 건축물은 설계에서 지반공사는 물론 각 분야의 공정에 따라 검사를 거친 이후에야 다음 공정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도 늦기는 했어도 건설선진국의 꼼꼼한 제도를 도입해 부실공사가 있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종합대책을 세우겠다는 정부 당국자의 표현은 이제 역겹기까지 하다.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 퍼져있는 붕괴불안심리는 정작 아파트의 부실시공보다 당국에 대한 불신감에 더 큰 원인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물질만능이 낳은 대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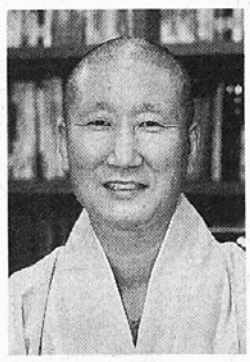
성수대교 붕괴와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건 이후에도 그랬듯이, 정부는 이번에도 대형건축물의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더 이상의 인재에 귀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점검과 대책을 요구한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가 있어야 할 최우선의 이유이다.

부실공사 이외에도 건물내부를 무리하게 개조하는 등 불안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어느 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0%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파트 개조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강남의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는 80%의 입주자가 내부구조를 바꿨다고 한다.

인간의 욕망은 다가올 불행도 아랑곳하지 않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우리는 무엇이나 빨리 성취하려는 생각도, 일에 직면해 대충 대충 해치워버리는 그릇된 습관도 그리고 무망한 욕심도 이제야말로 버리지 않으면 안될 때가 되었다.

'빨리 대충 한국병' 버리자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는 철조 다리를 건설하는 현장에서 작업인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다리는 사장인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만들었다고 여러분의 자식들과 손자, 손녀에게 말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주인의식을 강조한 것이며 그러한 주인의식을 우리들도 이번 삼풍 대참사를 기회로 가져야 할 것이다.



제 원
〈길음종합사회복지관장〉

또한 소비자 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안전사회 만들기' 운동에 각자가 적극 동참하는 것도 붕괴 신드롬을 극복할 훌륭한 방법이 될 것이다. 나아가 각자 건전한 고발정신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 안그래도 불안하고 외로운 것이 현대인의 심리라고 보는데 가중되는 공포가 있다면 어찌 행복한 사회를 지향할 수 있겠는가. 세상 만사가 모두 반복되고 연속되는 현실이라면 지금 이 순간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친척 그리고 이 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할 역사적 순간이기도 하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순간 속에서 그릇된 탐욕은 자신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국가까지도 망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남보다 잘 살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자.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상대적인 삶으로 만드는 것이다. 오히려 주체적인 입장에서 어느 곳에서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살아야만 하는 사회생활에서 동체대비의 정신을 구현하며 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삶의 진실은 돈도 명예도 아니다. 이웃과 더불어 웃고 즐길 수 있는 데 있다. 우리 다 같이 덧없는 삶속에서 생명의 실상(實相)을 찾도록 하자.

생활 속의 불교 ㉝

식단표 외운다고 배 부르겠나?



눈이 먼 사람에게는 지팡이가 필요하고 다리를 다친 사람에게는 목발이 필요하듯이 불법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스승이 필요하다.

참된 스승은 누구인가?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나기 쉽지 않고 태어나서 불법 만나기 또한 어렵다고 한다. 그러는 중에도 선지식 만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한다.

원효는 대안대사를 만났고 혜가는 달마대사를 만났다. 역대 조사들도, 큰 스님들도 다 눈밝은 스승을 만나 인도를 받았다.

이 혼탁한 세상에 중생의 심안을 밝혀줄 큰 스승은 누구인가?

승보에 귀의한다 함은 스님들을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다. 자·비·희·사의 무량한 구도정신, 한 점 흐트러짐이 없는 정진력을 보고 따라 배우라는 것이다.

단지 삭발염의한 모습이 남다르다 하여 믿고 따르라는 게 아니다. 금강경은 분명히 '상(像)으로 여래를 볼 수 없다'고 가르친다.

어떤 선사는 이렇게 말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겠노라'고. 그렇다면 진정코 참다운 스승은 누구란 말인가?

선사의 살불살조(殺佛殺祖)정신은 '자기 밖의 스승'에 대한 강력한 부정이요, 타력에 매달리는 중생에 대한 경고이다. '너 자신'이외엔 어떤 것도 '참'이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누구라도 다 불성을 갖고 있다. 고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고 깨닫기만 하면 된다. 그밖의 것은 다 허상이요 우상이다. 설사 내 앞에 달마대사가 있다 해도 깨닫는 주체는 '나'이지 달마가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지식이라도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해서 깨달아 줄 수는 없다. 밖에 있는 것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스승은 자기 자신이다. 깨닫는 주체는 '나'이다. 고로 법등명 자등명(法燈明 自燈明)일 뿐이다.

선지식은 지팡이요, 목발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요, 이정표이다. 음식점의 메뉴판이요, 지도(地圖)이다. 결코 그 이상의 것은 아니다. 지팡이요, 목발인 점에서는 흐르는 물, 바위, 나무 한 그루, 풀 한포기와 하등 다를 바 없다. 다같이 불성을 지닌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데는 산과 물, 선지식이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상(像)에 이끌려 박쥐중, 머리 깍은 거사조차 분별할 줄 모른다. 장님을 따라가다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혜가의 스승은 달마대사지만 불성을 깨달은 이는 혜가였다.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시켜먹고 배부른 것은 혜가였지, 달마가 아니었다.

무엇이 참 스승인 줄 알아야 비로소 올바른 스승을 만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달마도, 대안도 스승 노릇을 할 수가 없다.

청주 ⋮⋮ 심룡회, 심근회, 심일회
심원회, 심선회

하천오염 주범… 찌꺼기도 걸러 버려야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⑱



◇수질오염 원천은 생활하수이다. 한강을 썩게하는 폐하수중 생활하수 비중은 72%나 된다고 한다. 〈사진은 한강쓰레기 조사장면〉

생활하수

전통적으로 사찰에서는 바루공양을 통해 음식물의 찌꺼기가 남으면, 그것을 다시 깨끗이 씻어 마신뒤에 맑은 청정수(淸淨水)만을 하수구에 버리는 간소한 생활을 해왔다. 음식물의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음식에 관해 아들의 살고기(子肉)의 비유로서 말씀하셨다. 어떤 부부가 귀한 외아들과 함께 사막과 같은 황야로 길을 떠났다. 그러나 드넓은 황야를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양식이 다 떨어져 모두 기아와 굶주림에 죽게 되었다. 두 부부는 셋이 모두 죽지 않기 위해 사랑스럽고 귀여운 어린 외아들을 죽여 그 아들의 고기를 먹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외아들아 어디있느냐' 하고 통곡하며 아들의 살코기를 먹듯이 모든 음식에 대해 애민(愛憫)한 마음으로 단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사원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생명체의 일부인 음식만을 덜어서 바루에 담아 찌꺼기를 남김없이 청정하게 음식을 섭취하는 생활문화를 이루어왔다.

뿐만아니라 바루공양시 버리는 물을 청정하게 하는 것은, 하수구에 살고 있을지 모르는 목은 바늘구멍만하고 목덩이는 집채만한 아귀가 하수구에 버려진 음식찌꺼기에 목이 막혀 죽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원생활에서의 생명에 대한 경외는 자연의 수질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였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생명체에 대한 경외는 산업사회속에서 사라진지 오래되며, 특히 그 때문에 발생되는 현대인의 생활하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현대에는 도시인 한 사람당 하루에 300 l 의 물을 사용해 청정수를 오탁수로 변화시키는데, 우리에게는 언제부턴가 이 양이 많아질수록 문명의 척도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미국인은 수세식 화장실 일회 사용시 평균 23 l 의 물을 쓰는데, 한국인은 평균 6 l 를 쓰니까 미국보다 덜 문명화된 나라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식의 문명척도가 오늘날 환경재난의 비극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조사에 의하면 한사람이 하루에 반찬씻은 물, 기름물, 설거지물, 세탁한 물, 똥물, 오줌물, 합성세제물, 밀씻은물, 목욕물, 때씻은 물, 자동차 세척한 물, 음식찌꺼기물, 비눗물 등의 생활하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이 무려 청정한 물 10톤을 BOD 8ppm의 오탁수로 바꾼다고 한다. 이 청정도의 오탁수는 공업용수로도, 생물이 살기에도 부적합한 물이다.

BOD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말하는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물은 크게 오염되어 수중생태계를 파괴시킨다. 생활하수가 하천이나 호수에 다량 유입되게 되면, 그것을 영양원으로 하는 조류(藻類)나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상발생하여 부영양화된다. 부영양화는 영양분이 풍부하니까 좋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큰 오해이다. 자연의 청정수에 가장 많은 산소가 용존되어 있는데, 물이 오염되어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하면, 조류나 플랑크톤이 이상 발생하여 수중의 산소를 소모하여 산소결핍증상이 생겨나면서 BOD가 증가하는 것이다.

바루공양등 사찰생활 수질보호 '모범'

그 결과 조류나 플랑크톤은 물론이고 물고기도 떼죽음을 당하게 되고, 물고기를 먹이로 하는 새들도 죽으면서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된다. 그렇게 되면 하천이나 호수는 자정능력이 상실되고 부패와 악취의 죽은 생태계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대도시를 흐르는 모든 지천들이 물론 산업폐수의 영향도 있지만, 생활하수로 인해서 악취나는 죽은 하천이 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삼풍참사' 관련 월주스님 성명서

—— 생명존중·인간중심 가치관이 확립되는 공동체사회를 위하여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께 심심한 조의와 함께 명복을 빌며, 하루하루 고통속에 지내고 있는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제불 보살님께 기원합니다.

본 종단은 '희생영가천도 초재'를 지냈고, 오늘 2재를 맞이하였습니다.

본인은 이번 사고가 우리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중중무진의 연기관계에 있는 이 사회의 공동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는 점에 더욱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은 대형참사는 하나같이 인간의 교만과 탐욕심이 일으킨 인재(人災)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도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과 생명존중의 가르침이 물질만능의 가치관을 바로 잡을 수 있으며, 서로가 하나임을 깨닫는 동체대비행만이 이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불교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이끌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마음속 깊이 참회합니다.

□ 기업가들의 사회윤리회복을 촉구합니다

기업가들은 너와 내가 서로 의지하고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연기법을 깨달아 배금주의, 불신풍조, 인간경시풍조, '빨리 빨리'병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회공동체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사회적 윤리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 공직자들의 일대 반성을 촉구합니다

공사의 설계, 기공, 감리상의 부실, 무리한 증개축, 불량자재 사용, 행정관청의 감독 및 안전진단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이번 참사를 관계 공직자들은 뼈아픈 자성과 값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본인은 6.27선거 이후 선거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한 대통령의 현실인식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 참사로 심화된 민심이반을 하루속히 극복하도록 촉구합니다.

□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정파이기의 소모적 무한 정치투쟁과 지역할거주의를 지양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룩해 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전력하기 바랍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삼풍 붕괴사건에 따른 구조적인 병폐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재난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또한 '인위재난관리법'안을 검토하고 부실건설과 관리의 불철저함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묻는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번 삼풍붕괴사건을 계기로 본 종단은 앞으로 재난에 대비한 자원봉사 조직을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또한 이번 사고로 희생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합동 위령재를 7월19일에, 천도 49재를 8월16일에 봉행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들의 슬픔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불보살전에 기원합니다.

신행수첩

신라 9산선문 그 사상의 맥을 찾는다

광주불교교육원 문화강좌·유적답사

한국불교사의 큰 분수령이 된 선종의 사상과 문화를 9산선문(九山禪門)의 역사적 배경과 유적답사를 통해 알아보는 불교문화강좌가 열린다.

광주 최초의 불교 사회교육기관인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지선)은 남도불교문화연구회(회장 이승규)의 도움으로 우리문화의 숨결을 바로 알고, 잊혀져 가는 민족문화의 맥을 찾아가는 '선종산문 그 사상과 문화의 접목' 주제의 불교문화강좌를 마련한다.

△8월 2일에는 신라하대의 초전(初傳) 선의 특징을 알아보는 '화엄사상과 선사상'(최성렬 조선대교수) △9일 9산선문의 형성배경을 밝히는 '신라하대 사회와 선종 산문의 성립'(이계표 광주대강사) △16일 '선종과 철불의 등장'(정선종 광주시문화재전문위원) △23일 슬라이드로 보는 '선종 산문을 찾아서'(정선종)에 이어, 27일에는 호남지역의 선종 산문을 찾아 유적답사를 떠난다. 답사지로는 지리산 실상사, 곡성 태안사, 장흥 보림사, 화순 쌍봉사 등이다. (062)228-9098.

황금의 휴가를 山寺서

보덕사 명상수련원 열어

온종일 공부에 매달려야 하는 학생, 숨돌릴틈 없는 바쁜 일상의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방학과 휴가.

이 황금같은 휴가기간에 산이나 바다로 여행을 떠나 자연을 벗삼아 지친 심신을 가다듬는 것도 좋지만 며칠만이라도 산사에 묻혀 자신을 탐구해 보는 것도 보람된 휴가를 보내는 방법일 것이다.

강원도 영월에 자리한 보덕사가 오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위빠사나 명상 수련원을 개원하고 단체나 개인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기간은 20일간이지만 하루를 있어도 무방하다. 단지 오후불식과 묵언을 통해 고요한 명상에 잠기고 싶은 사람이면 된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예불과 경행, 좌선이 반복되는 하루. 그 속에서 참가자들은 마음을 비우고 다시 채우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0373)374-3169

"진기한 보물 보러가요"

95 여름박물관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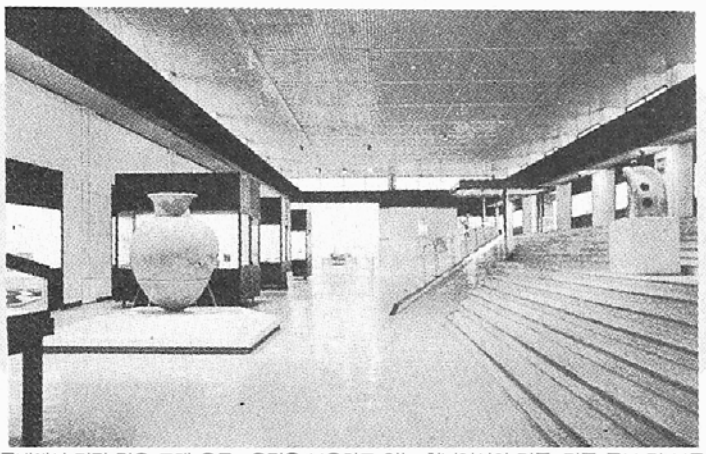
스스로 X세대임을 자처하며 서구화돼가는 우리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더욱 절실해져 가고 있는 역사의식과 전통문화의식 고취의 필요성.

국립박물관이 이런 시대의 우려를 씻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며 우리의 전통양식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중앙박물관과 각 지방박물관에서 95여름박물관교실의 문을 연다.

박물관교실은 강의와 전시실 학습, 도자기 만들기 실습, 유적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초롱초롱한 눈빛들을 기다리고 있다.

국교대상은 7.18~8.4일까지, 중학생 대상은 7.24~28일까지 박물관 교실이 열린다.

이번 박물관교실은 경주, 광주, 부여등 지방에 따라 부모와 함께하는 문화교실을 비롯해 각기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라 방학을 맞아 지방 나들이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02)739-3872, 738-3800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대 유물·유적을 보유하고 있는 천년역사의 경주. 각종 국보 및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은 경주의 또다른 자랑거리다. 〈사진은 국립경주박물관 전시실〉

"불교는 쉽고 친근한 것"

대구불교교육원 특강

많은 일반인들은 흔히 불교를 이해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또 시대와 맞지않는 부분이 많다고도 한다.

대구불교교육원이 1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유명스님들과 불교학자를 초청, 직장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불교 기본교리를 시대적 감각에 맞춘 쉽고 재미있는 특별강좌를 마련한다.

불타의 생애와 사상, 불교문화, 미륵·정토사상, 불교복지론 등의 강좌가 불교를 쉽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이해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질곡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강의를 듣는다면 보다 폭넓은 불교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053)253-7063

'어머니의 숨결' 사찰음식

BBS 문화센터

김치보다는 치즈, 햄버거, 피자파이 등 패스트푸드를 탐닉하고 있는 국적불명의 문화가 활개를 치고 있는 요즈음. 조상들의 지혜와 정성이 스며있는 전통사찰음식의 이론과 조리법을 배워 활용할 수 있는 강좌가 불교방송 문화센터에서 마련된다.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소장 적문) 개원 3주년기념으로 마련되는 이번 공개강좌에는 신토불이 어머니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해줄 비법(?)이 가득하다.

점차로 서구화되어 가는 청소년들의 입맛에 우리 음식의 맛과 멋을 선보일 좋은 기회다.

강좌는 오는 19일 2시. (02)245-0904

"하늘천, 따지…" 힘찬 메아리

법왕사 어린이 한자교실

"하늘천 따지 검을현 누루황…" 고사리불자들의 천자문 읽는 소리가 정겹다.

해인사 대구포교당 법왕사(주지 실상)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어린이 한자교실을 연다.

법당에 모셔둔 부처님을 흐뭇하게 만들 이번 한자교실은 바람직한 세계화는 '온고이지신'을 통해 이룩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듯.

중고등학생이 되어도 신문하나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현세태를 볼때 어린이 한자교실이 널리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053)766-3747.

우란분절 예수재

영구위패영가단 설치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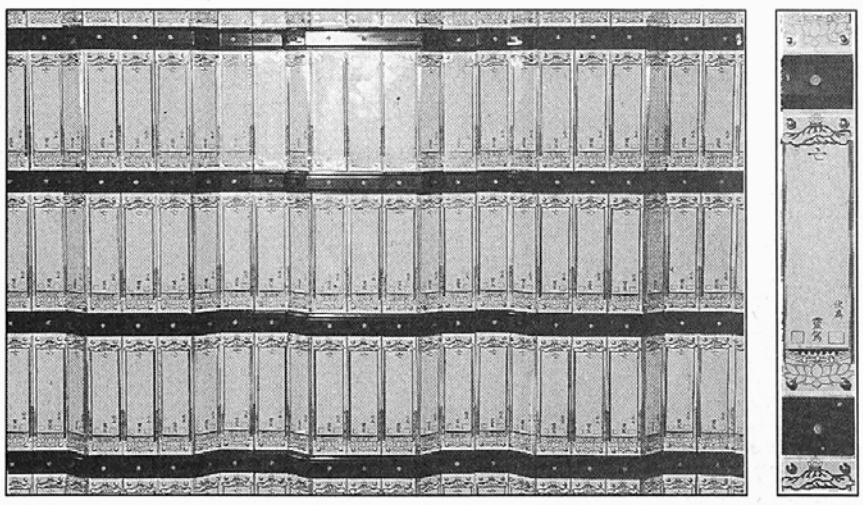
아직도 영단때문에 고민하세요? 이제까지 이런 제품은 없었습니다.

여기 영가 한등 한등에 孝와 魂을 담아 古典과 現代를 잘 접목시켜 장엄하며 깨끗하고 사용이 편리하며 정성스럽게 제작된 조립식 신개발 특허품입니다.

특 징

① 한위 한위에 한등처럼 불을 밝혀 장엄합니다.
② 전구는 반도체로서 반영구적이며 단전이나 위험성이 없습니다.
③ 조립식이므로 中, 小, 大刹 및 포교원등 어떤 형태에도 쉽게 설치합니다.
④ 영단 위치에 따라 上, 下, 左, 右로 얼마든지 이어 붙일 수 있습니다.
⑤ 名山大刹이라도 영단은 취약하므로 본제품 설치시 모양이 미려하여 법당분위기가 달라집니다.
⑥ 색상은 2종류(밤색, 하늘색)가 있습니다.

서울 도선사외 1027곳에 설치하여 많은 성원과 호평을 받았으며 현재 계속 설치중에 있습니다.



〈영구위패 영가단 설치전경과 견본〉

그동안 기획·제작에 자문과 협조를 주시고, 본제품을 설치하여 애용하여 주신 주지 스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편 리 성

① 영구 위패는 안으로 끼고 행사시(우란불절, 예수재일, 지장기도)도 밖으로 끼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② 생축(설판자, 축원기도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이동설치도 가능하며 장소를 적게 차지합니다.

佛敎文化 中興을위한
卍 般 若 院
■ 전시장 : 서울 조계사입구 상운중심 2층
전화:(02) 725-0250(대), 501-1300(야)
■ 부 산 : 전화:(051) 759-1746
휴대폰:011-224-9642 / 호출:015-554-9642



비구니회 임원진 조계종 총무원 방문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우스님은 지난 11일 오전 10시 각 부장 및 국장스님들과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부장스님들과 상견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월주스님은 "비구니스님들이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종단발전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월주스님 운불련에 법구경 테잎 전달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4일 한국운전불자기사연합회(회장 문영호)에 법구경 테잎 1만개를 전달했다.

깨달음의 사회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기증식에는 종회의장 설정스님, 문화사회부 부장 시현스님, 호법부장 혜창스님과 운불련 문영호회장, 오택혁 사무총장, 이중석 대전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천마재활원 축구부 월주스님 예방

'95 특수올림픽'에서 축구부문 은상을 수상한 부산 천마재활원(원장 박근련) 축구부 단원들이 지난 13일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했다.

불교단체로서는 사상초유로 참석, 은상을 획득한 천마재활원 축구부 단원에게 월주스님은 "정신지체인이라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선전분투한 여러분에게 찬사를 보낸다"고 치하했다.



전신협 중앙위원에 위촉패 수여

한국불교신도단체협의회(회장 김용직)는 지난 7일 서울 호텔에서 중앙상임위원 및 중앙위원위촉패 수여식을 봉행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중앙상임위원 10명, 중앙위원 70명이 위촉패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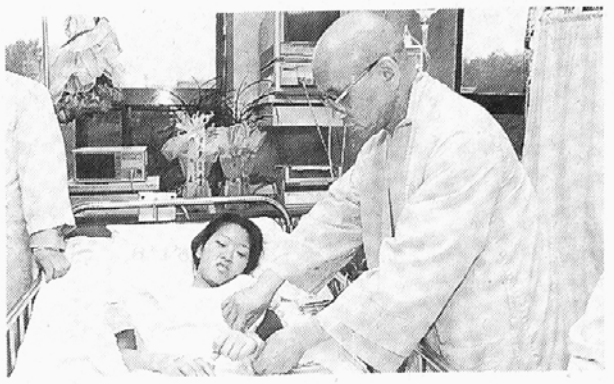
이들 위원들은 앞으로 1년간 각분과별로 나누어 불교발전과 포교활동을 펼친다.



월주스님, 유지환·최명석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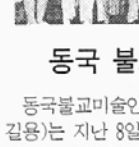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13일 낮 12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현장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유지환양(18)과 최명석군(20)이 입원해 있는 강남성모병원을 방문했다.

스님은 이들에게 준비해 온 크리스탈 합장주와 호신불시계, 한글 불교 성전등의 선물을 전달하면서 "하루속히 완쾌돼 가정과 사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당부했다.



교 차 로

한불연 개원 1주년 법회



월탄스님(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은 지난 13일 오후2시 연구원 법당에서 개원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인도네시아 성지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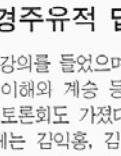
현해스님(월정사 주지)은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9박10일간 인도네시아 성지순례를 마치고 귀국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맡아



정빈스님이 지난 11일부로 공석중이던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소임을 맡아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법현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해인사 대교과를 졸업하고 해인사 포교국장 조계사 기획국장을 역임했다.

승무 무형문화재 27호로



법우스님(대전 현불사 주지)은 지난달 승무 이수시험에 합격, 무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됐다. 스님은 송암스님에게 법패를 이수 받았다. 스님이 승무 이수자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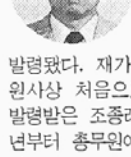
범국민운동 결성회 개최



서돈각추진위원장(한일과거청산 범국민운동 본부)은 광복50주년을 맞아 26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범국민운동 결성대회를 개최한다.

동양철학회 수련·학술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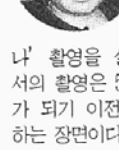
송석구한국동양철학회 회장(동국대 총장)은 지난 13일부터 3일간 경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산성마을 도통사 등지에서 제25회 한국동양철학회 하계수련대회 및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한국전문신문협회 현판식

한기호회장(한국전문신문협회)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종로구 신문로 사무실에서 한국전문신문협회 현판식을 가졌다.

독일 행정대학원 세미나 참석



심익섭교수(동국대 행정학과)는 독일 국립행정대학원에서 주최하는 '동서독과 한국의 지방자치' 세미나에 참석키 위해 지난 12일 출국했다.

경주시의회 의장에 피선



박재우씨(경주 불국사 신도회장·자애원 이사장)는 지난 6.27선거에서 경주시의원으로 당선된 후 다시 의장에 선출돼 지난 7일 의회 개원식을 가졌다.

조계종 총무부 부국장 승진



조종래씨(58)는 지난 11일부로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부국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재가인으로는 총무원사상 처음으로 부국장으로 발령받은 조종래씨는 지난 70년부터 총무원에서 근무해 왔다.

국내최초 몽골서 영화촬영



이일목감독은 17일~21일까지 국내최초로 몽골에서 영화 '카루나' 촬영을 실시한다. 몽골에서의 촬영은 5백나한이 불제자가 되기 이전, 약탈과 도둑질하는 장면이다.



동국 불교미술인회 경주유적 답사

동국불교미술인회(회장 허길용)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경주지역 불교유적지 답사를 가졌다. 불국사, 석굴암, 감은사지, 대왕암, 기림사 등을 답사하며 정명호 자문위원의 강의를 들었으며 불교미술사 이해의 계승 등을 내용으로 토론회도 가졌다. 이번 답사에는 김익홍, 김의식, 박찬수, 박갑용, 진철문, 곽동해, 김광렬씨등 25명이 참가했다.

호국 수심사 낙성법회 김종봉 법사



"갓 군대에 들어온 청년불자들의 인격도야와 신앙전력화의 도량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4일 양평군소재 호국 수심사 낙성식법회를 봉행한 김종봉법사의 소감이다.

신병교육대 불자들은 그동안 군내 강의실에 법회장을 마련 법회를 해왔다. 매주 일요일 법회는 항상 초만원. 때로는 의자가 부족해 바닥에 앉아서 설법을 듣는가하면 심지어는 문밖에 서서 법회에 동참한다. 김법사를 비롯 양평군 지역 사암연합회는 금년초 법당건립의 서원을 세우고 불사를 시작했다.

김법사는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훌륭한 군인으로서 면모를 쇄신하는 장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다. 〈근〉

"자비사상 바탕 훌륭한 군불자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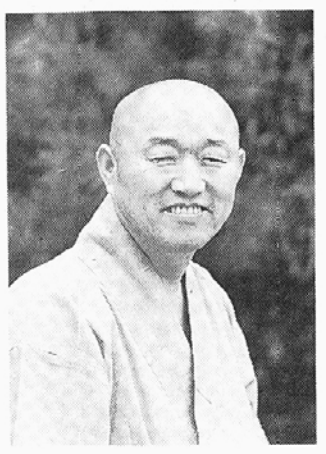
중앙대서 석사학위 받아



김성녀씨(연극배우)는 다음달 중앙대 대학원에서 '김연수의 창작판소리 연구, 춘향가에 기하여'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는다.

구도사 개원 및 봉불식

상정스님(구도사 주지)은 양천구 목1동에 포교원 「구도사」를 개원 오는 23일 오전10시 부처님 점안 및 개원식 법회를 봉행한다. (02)651-6579



석성우스님

수타사서 태령영가 천도재

"낙태는 살인, 생명의 소중함 알아야"

"낙태는 살인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생명의 존엄성은 존중돼야 합니다"고 말하는 석성우스님(조계종 홍콩 홍법원).

스님은 태교시집 '하늘 맑은 날'을 지난 6월 출간한데 이어 지난 15일 대구 수타사에서 낙태·유산된 태령영가 천도재를 집전했다.

84년 홍콩 홍법원에서 신도들이 무심코 주고받는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생명의 존엄성과 인연과보의 엄중함을 불자들에게 일깨우고자 태령영가 천도를 시작, 홍법원에서만 9차례의 천도재를 봉행해 왔다.

낙태영혼의 천도방법에 대해 스님은 "수행하시는 스님에 따라 다르지만 저의 경우 관(觀)을 통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스님은 아기의 출생에는 업보중생과 원력소생이 있다고 말하면서 "잉태된 아기의 업을 덜어주기 위해선 부모가 지성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선근공덕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게 시 판

▲대구구도회정기강좌=오는 24일부터 8일간 제39회 불교기초과정강좌를 연다. 강사는 이기영박사, 정병조교수, 근일스님. (053)654-8533

▲증범스님초청 다보법회=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는 오는 26일(수) 오후2시 중앙승가대 교수 증범스님을 초청하여 다보법회를 봉행. (02)703-0108

▲삼광사 여름불교학교 개설=천태종 삼광사(주지 춘광)는 오는 22~24일까지 국민학생 1천명 대상으로 2박3일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개설한다. (051)808-7111

▲교불련 하계수련회=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한상범)는 8월 2~4일까지 전남장성 백양사에서 하계수련회를 개최한다. 참가비는 3만원. (02)268-6610

▲'백일법문' 강좌개설=동산불교대학은 성철스님의 '백일법문'을 교재로 8월5일부터 2년과정의 직장인을 위한 강좌를 개설한다. (02)732-1206

▲아동공부방=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각스님)은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의 정서발달과 학습지도를 위한 아동공부방을 개설했다. (02)421-6077

제작·발행 : 사찰문화연구원 02-566-4709

책방 여시아문이 권하는 책

효심의 본찰

용주사 사지(寺誌)

사찰 문화의 결정이요, 신행의 요람입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정조의 효심이 불심으로 승화되어 이룩된 용주사.

오늘날까지 '효의 근본사찰'로 인식되고 있음도 정조의 정신이 사찰 곳곳에 스며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문 중 창건 배경의 한 토막)

•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쉬운 내용으로 엮은 최초의 사지
• 조선왕조 사찰 창건의 역사가 담긴 사지

* 이제는 신도 교육과 포교도 '사지 발간' 등을 통해 한단계 더 높여야 할 때입니다.

변형판(18절)/248쪽/전면컬러(사진 168매 수록)/ 값 10,000원

효를 통해 본 불교의 인간관

'효의 세상 정토의 세상'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 효, 한국 불교에 살아 숨쉬는 고승들과 재가 불자들의 효행, 효 윤리의 현대적 의의를 평이한 문체로 집중 조명하였습니다.

• 불교의 인간관을 수록
• 왜 부처님은 출가후에도 효를 했는가?
• 불효자는 성불할 수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
• 출가후 고승들의 효행
• 불교에서 말하는 부모의 은혜를 말함

* 부록으로 용주사 소장 부모은중경 목판본을 영인하여 실었습니다.

신국판/240쪽/전면컬러(사진 39매 수록)/ 값 7,000원

전통사찰총서

사찰 속에 깃든 한민족 문화의 뿌리 찾기

방대한 자료와 철저한 고증에 의한 정통 사지

전 통사찰총서 1,2 · 강원도 Ⅰ,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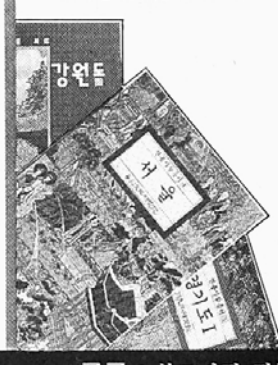
강릉시 · 속초시 외 16개 시군의 유물 · 유적 총람 / 월정사 · 신흥사 외 55개 전통사찰 및 절터의 창건 설화, 문화재, 대표적 수행자, 성보의 불교 문화사적, 신앙적 의미 해설 / 문화부지정, 강원도 소재 전통 사찰 목록 / 탑 · 부도 석비 · 불교 건축물의 부분 명칭

강원도 Ⅰ → 268쪽/신국판(사진 262매 수록) / 책값 7,500원
강원도 Ⅱ → 252쪽/신국판(사진 267매 수록) / 책값 7,500원

전 통사찰총서 3 · 경기도 Ⅰ

안양시 외 9개 시군의 문화적 특성 개관 / 용주사 외 45사찰 · 절터의 모든 것 / 불교문화재 목록 / 절터 목록 / 불교 금석문

362쪽/신국판(사진 217매 수록) / 책값 10,000원



전 통사찰총서 4 · 서울

서울의 역사 · 문화 개관 / 각 구의 문화적 특성 / 54개 전통 사찰의 모든 것을 구별로 나누어 정리 / 서울 소재 불교문화재 목록 /서울 전통 사찰 주소록

472쪽/신국판(사진 297매 수록)/책값 10,000원

전 통사찰총서 5 · 경기도 Ⅱ

인천시 · 남양주 시 외 14개 시 · 군의 불교문화 소개 봉선사 외 55개 사찰 및 절터의 사찰문화 총람 8월말 발간 예정입니다.

불교 문화 남·북한 민족 동질성의 공통분모

분단 이후 최초로 시도된 '북한사찰연구'

Ⅰ. 총설

북한의 승려 · 신도 단체, 북한의 종교 정책을 통해본 '북한 불교의 현재'

Ⅱ. 북한의 현존 사찰

북한의 현존 사찰로 알려진 60여 개 사찰의 역사적 고찰

北韓寺刹研究

Ⅲ. 북한의 주요 사찰

한국 불교사에 큰 자취를 남긴 12개 사찰의 역사적 인물, 귀중한 문화재의 모든 것

Ⅳ. 북한의 불교 문화재

북한에서 지정한 58점의 불교 문화재의 종교적, 예술적 의미

Ⅴ. 북한의 사찰 재산

분단 이전 사찰 소유의 재산 현황(과거 31본산의 북한 지역 내 사찰 재산 목록 : 289개 사찰, 82,000정보)

Ⅵ. 북한의 사암 목록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북한 지역에 존재했던 1,793개 사찰과 문헌 정리(위치 · 창건 · 주요인물 · 문화재 : 도표화)

680쪽/4×6배판(사진 206매 수록)/값 30,000원

공급 : 불교서적 전문 책 방 여시아문 02-737-0695

"허공에 노니는 학이 되리라"

산문밖의 선禪

한량무 예능보유자 **김 덕 명** 옹



춤판은 수행마당 "생각마저 버려야지" 평생 화두

'지성승무' '연등바라춤' 등 기교 넘은 달인 경지

"학춤을 출 때는 학이 되고 지성승무를 출 때에는 선사가 되려고 하지. 그것이 나의 춤이야."

학이 되고자 하는 춤꾼 김덕명(金德明)옹. 김옹은 일흔하나의 성상을 춤추는 마당에서 살았다. 그래서 김옹은 춤추는 일외에는 다른 일은 할 줄 모른다.

"춤꾼이 춤만 추면 되는 것이지 다른 일을 해서 뭐하겠소. 평생을 춤판에서 살았어도 아직 나는 완전한 춤꾼이 되지 못했으니 남은 시간도 춤을 추어야 할 것이고…, 전생에 못마친 일을 지금 하는지도 몰라."

절에서 춤사위 배워

김옹은 어쩌면 전생에도 춤을 추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막연한 전생에 대한 믿음은 이제 내생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옹은 언젠가 멋드러진 춤판에서 학춤을 추다가 한마리 학이되어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다.

"내가 전생에 춤꾼이 아니었다면 이미 춤에 몰입된 한 경지의 광채로 빛난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학춤을 '학을 시늉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춤꾼이 바로 학이 되어 노닐고 있다'고 말한다.

영축산 푸른 소나무에서 날아든 한마리의 학. 그 학의 날개와 몸과 다리가 내보이는 갖가지 동작은 아름다움의 관념조차 넘어서 아름다움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김옹이 펼치는 무대에서 항상 듣는 평이다.

"나는 춤을 출때만큼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아. 그저 학이 되어 너울거리는 것 뿐이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의 춤이 될 뿐이야. 진정한 학춤은 내가 한마리 학이 되었을 때 나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지극히 철저한 수행이야. 수행의 마당에서 깨달음의 즐거움을 아름다운 동작으로 연결시켜 내는 것이지. 물론 쉬운 일도 아니고 쉽게 생각해서도 안되는 일이지."

자신을 잊어버린 곳에서 추는 춤. 그러나 학의 '탈'을 쓰고 있어 학이 되어야 하는 춤. 끝내는 자신도 학도 다 잊어버린 순간에 얻는 깨달음의 기쁨까지를 넘보는 춤꾼의 집요한 기질이 일흔의 노구를 감싸고 있다.

김옹은 학춤 외에도 '지성승무' '연등나례무' '연등바라춤' '교방살풀이춤' '고전추월춤' '한량무' 등에도 달인의 경지를 갖추고 있다. 물론 지금도 하루 서너시간씩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춤에 대한 의무감이 아니다. 춤꾼으로서의 자신을 한 순간도 놓지 않기 위해서다. 춤을 추는 것은 기교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굳은 믿음 또한 김옹을 지탱해 주는 화두이다.

"춤판에서는 둘러 선 관객들을 생각해서도 안되고 무슨 기술로 그들을 사로잡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도 안되는 것이야. 오직 내가 춤을 추다가 그 춤이 되는 것에 몰두 해야지. 그리고 끝내는 내 춤을 보는 사람들마저 춤이 되게 해야 하거든. 그것은 역시 의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비운 곳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나는 아직 한번도 나와 관객과 춤을 하나로 묶어 보지 못했어. 그래서 또 다음의 춤판을 기다려."

춤 · 춤꾼 · 관객은 하나

또 다음의 춤판을 기다리는 김옹은 고독하다. 고독한 연습과 고독한 준비로 다음 춤판의 성공을 기대하는 칠순의 춤꾼. 그것은 어쩌면 춤보다 아름다운 춤이전의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고독을 안으로 삭히며 춤사위를 익혀 온 김옹이기에 그의 춤판은 언제나 유연한 학의 놀이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립 그리는 스님들이 학을 많이 그리는데 그것은 학이야말로 선(禪)의 짐승이기 때문이지. 그 긴 다리와 단아한 몸체, 그리고 고고한 자태가 깊은 산의 수행승을 연상시키거든. 내 학춤도 그것과 같은 것이야. 수행자가 목적하는 깨달음의 세계, 그 기쁨의 세계로 너울너울 날개짓하며 날아가는 학을 생각해봐. 그 아름다운 날개짓으로 나는 이승의 춤판을 그대로 가져가 저승에서도 춤을 또 추고 싶은 거야."

요즘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해할 지 모른다며 스스로의 심정을 털어놓는 김옹은 사뭇 진지하다. 이승 인연의 끝을 얘기하기에는 아직도 젊다는 느낌을 주는 김옹. 영축산의 푸른 소나무 위에 앉아 하늘을 우러르는 한마리 학이 분명한 김옹은 말로만 '옛것을 배우자'고 떠드는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화두를 던진다.

"옛것, 우리것을 배우되 기교를 배우려고 하지말고 그 속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이야. 춤의 마음이 무엇인지 먼저 알지 못하면 이미 춤은 몸놀림에 지나지 않는 것이야."

박병근 기자



삽화 · 이기선

편견 낳은 '자연꽃' 시비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㉟

연꽃(蓮華)

탐욕 초월한 청정성 상징

중고등학교시절이다. 부산 대각사의 부산불교학생회에 다닐때 부처님께 바쳐 올리는 노래가 있었다. 꽃공양 노래가 바로 그것이다. 노래를 부를 때는 마음이 고요하게 됨은 물론 온 정성을 쏟아서 부처님께 꽃을 올리는 순간은 가슴속에서 상큼한 향기가 치솟기도 하였다. 노래말은 아마 이럴 것이다.

화려한 강산에 피어 꾸며진
아름다운 꽃들 꺾어 모아서
단장한 공양꽃다발
부처님은 성안에 웃음 지으시네

어린 불교학생회 회원들은 정성껏 꽃다발을 올리면서 이 노래를 경건하게 불렀다. 어린 마음이 청초하게 되는 순간들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참 좋은 세월이었고 지금껏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종교체험이 추억이 되면 안되지만 그래도 순수의 고향에서, 청정한 도량에서 예경하던 시절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때 우리들은 가난하였다. 꽃가게에서 꽃을 사서 올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은 산이나 들에 핀 들꽃들을 갖고 꽃다발을 만들었다. 들꽃이라 여러가지이고 때때라 갖가지 꽃들로 꾸며 올렸다. 그래도 부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이셨다. 아마 가상하게 받아주시는 것이리라.

금기의 꽃 취급 '어불성설'

여전히 절 법당 탁자에는 수많은 꽃들이 올려지고 있다. 한국꽃 서양꽃 가리지 않고 공양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백합꽃도 올린다. 장미도 수선화도, 물망초 안개꽃도 올린다. 부처님께서는 자안으로 내려보시며 웃으신다. 부처님의 눈에는 무엇이던지 자애로움으로 비취시게 되는 위대한 공능이 있으신가 보다.

꼭 불교에서 상징되는 꽃만 올리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모양이시다. 초목중생을 남김없이 사랑하시는 것이다. 일체 초목에도 불성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 부처님께서 자비로 섭수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한국사람으로 연꽃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연꽃은 불교의 꽃이니까 우리하고는 무관하고 아니 금기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우스운 일이다. 지구 도처에는 자연생의 꽃이 피고지고 한다. 자연의 법칙이다. 사람이 싫어하고 금기하고를 막론하고 때가 되면 싹이 돋고 움이 나서 꽃이 피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핀 야생화들은 사람들을 기피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제가 할 수 있는 생명력에 의하여 피고지고 하는 윤회를 거듭한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들에 시비나 증오 금기하는 독단적 사고방식을 접목시키는 것일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닌가.

간간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알만한 연못이나 정원의 연꽃들이 수난을 당한다고 하니 인간과 자연을 이간시키는 행업이 아닌가. 연꽃은 자연의 것이다. 어느 특정종교를 상징하는 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 교리와 맞추어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연꽃이 상징되었을 뿐이다. 연꽃은 연꽃일뿐 종교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연꽃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뭇 교리와 상응한다면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하여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진흙에서 청초하게 피어

연꽃의 성질은 진흙속에서 성장한다. 그러나 청초하고 맑게 피어 오른다. 연꽃에는 어떠한 물기가 묻지 않는다. 이러한 연꽃의 성질을 십분 활용하여 사바고해에 살고 있는 중생들도 열심히 닦으면 사바에서 청정성을 갖추는 깨침이 된다던가, 깨침의 성품에는 어떠한 번뇌도 탐욕도 되물지 않는다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연꽃을 불교의 꽃으로 삼아서 많은 설법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연꽃은 아열대지역의 수렁, 늪, 호수에서 자생하는 꽃이다. 청련, 홍련, 백련 더우기 우담발화는 삼천년만에 피는 연꽃이라 하여 일대사 인연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연꽃처럼 고귀하고 청초한 꽃이 있으랴.

그런데 이 연꽃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는 법당 탁자에 올려진 백합을 보고 괄시해 본 적이 없다. 이 백합은 다른 종교의 상징꽃인데도 불구하고 백합의 순수함을 상찬할 뿐이다.

꽃을 갖고 시비하는 마음에는 편견과 독선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마음의 행방을 다스려야 한다. 자연에 피는 꽃 모두를 부처님께 예배공양용으로 올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배워야 할 것이다.

죽장사(법륜사)생전 예수재

죽장사터에는 국보 130호로서 통일신라시대 때 조성된 5층 불감식탑만 있을 뿐 도량은 풍우에 씻기어 큰 또랑이 되었으며 사찰의 모양새는 전혀 없던 곳에서 기도에 들어간 지 이제 5년! 법당 25평 요사 53평 산신각 8평을 지어 윤 8월 6일을 기해 생전 예수재(49일기도)를 올립니다. 불은에 감사하고 인연 맺은 모든 단월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불국정토에 태어나 다시는 육도윤회 하는 일이 없도록 다같이 예수재 불사에 동참을 권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불기 2539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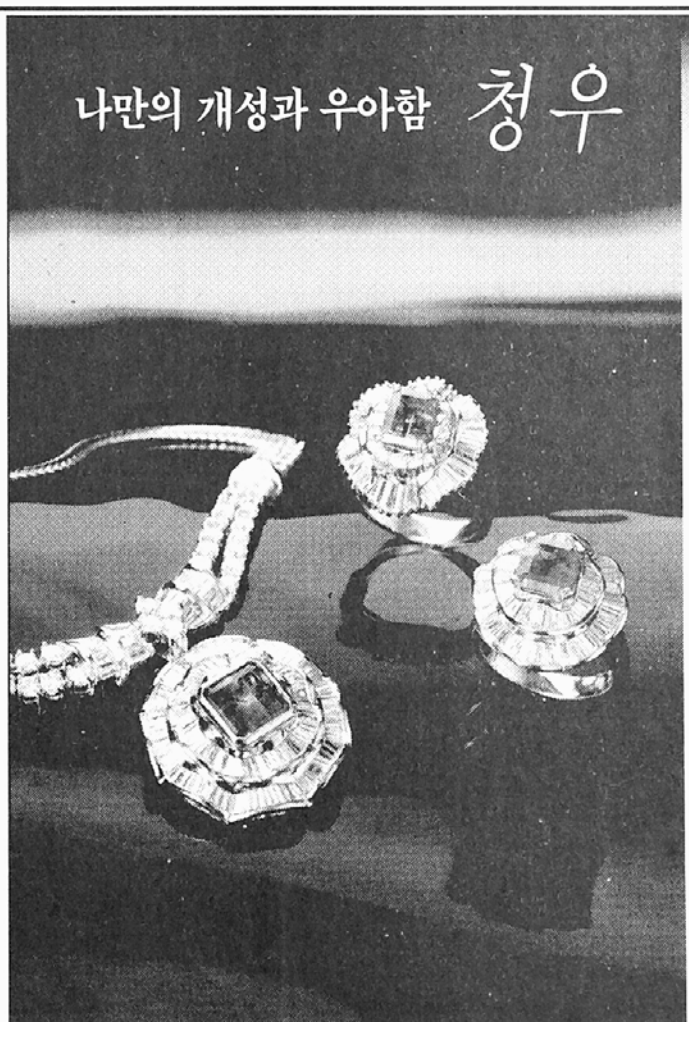
죽장사 주 지 : 명 효
총 무 : 견 진
신도회장 : 김학송(大慧) 합장
전 화 : 0546-481-2736, 481-7550

입재 : 8월 13일(음 7월 17일) 오전 11시
초재 : 8월 20일(음 7월 24일) **2재** : 8월 27일(음 8월 2일)
3재 : 9월 3일(음 8월 9일) **4재** : 9월 10일(음 8월 16일)
5재 : 9월 17일(음 8월 23일) **6재** : 9월 24일(음 8월 30일)
회향 : 10월 1일(음 윤 8월 7일) 새벽 4시
(9월 30일 밤 10시 ~ 4시까지 예수재 및 고혼 천도재 봉행을 위하여 9월 30일 오후 3시 서울 조계사 앞에서 출발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참금 : 예수재 30,000원 위패 1위당 10,000원

서울지역 : 진여회 정기버스 운행
※ 8월 13일, 8월 20일, 8월 27일, 9월 3일, 9월 10일, 9월 17일, 9월 24일, 아침 6시 조계사 앞 출발 당일 오후 7시 서울 도착
※ 9월 30일 오후 조계사 앞 출발 다음날 오후 6시 조계사 앞 도착
교 통 비 : 20,000원(왕복)
예약전화 : 02-732-0181~3 수미산여행사(진여회)

대구지역 : 8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매 일요일 오전 9시 출발 대구도착 오후 4시
예약전화 : 053-654-5600, 리라유치원 053-652-7171

이 밖에 고속버스나 일반 직행버스로 선산에 도착하시면 8월 20일 일요일부터 10월 1일 일요일까지(예수재 끝나는 날) 선산 시외 버스터미널에서 죽장사행 무료 셔틀버스가 매 정시마다 대기하오니 서울과 대구에서 죽장사행 버스를 이용 못 하실 때는 일반버스로 오셔도 됩니다.



백제금동반가사유상 진위놓고 논란

중앙박물관 '모조품' 판정에 정영호 교수 '진품' 주장

지난해 5월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모조품으로 판정됐던 백제금동반가사유상(百濟金銅半跏思惟像)이 백제시대의 진품불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대 정영호 박물관장은 최근 한국문화사학회 학술지인 〈문화사학〉 제3호에 발표한 '백제금동반가사유상의 신례(新例)'라는 논문을 통해 "백제금동반가사유상은 제작기법상 전형적인 백제시대 양식의 진품불상"이라고 주장했다. 정관장은 이같은 양식적 특색으로 △불상머리에 얹은 세련된 보관(寶冠)과 원만한 상호(相好) △반가부좌한 무릎의 모양과 손가락의 놓임새 △허리띠 아래부터 양옆으로 드리워진 환식(環飾: 고리모양의 장식) △왼쪽 다리부분의 화려한 연꽃무늬 등을 들었다.

지난 93년 가을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산 부근에서 우연히 발견된 이 불상은 높이 19cm에 오른쪽 발을 왼쪽 무릎에 얹고 의자에 걸터 앉은 채 손으로 턱을 괴고 깊은 상념에 잠긴 듯한 모습을 한 전형적인 반가사유상의 형태를 지녔다.

정관장은 "대마도 정립사(淨林寺) 소장 금동반가상, 나가노켄(長野縣) 소장 금동반가사유상과 도쿄의 한 시민이 소장한 금동반가사유상과 비교한 결과 손목에 팔찌 장식이 있고 허리에 나비형 매듭이 장식돼 있는 등 양식과 기법이 똑같으며 제작연대는 백제말기인 서기 600년경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불상에서 채취한 푸른색 녹과 뒷면 하단 파손부위의 청동, 표면의 금동 등을 한국자원연구소에 보내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아연이 검출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고대의 전통적 주조기법으로 보이며 합금성분이 삼국시대의 것과 유사하다"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이 불상을 감정했던 황수영박사(前동국대 총장)도 "양식 특징과 발견자의 증언, 발견된 장소가 백제 유물이 다수 출토된 부소산성인 점으로 미루어 백제시대의 국보급 진품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측은 "당시 발견자의 증언내용이 이치에 맞지 않고 발견장소도 불명확한 점, 그리고 전체적인 조성양식으로 볼 때 10년 이내의 모조품이 분명하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 진위여부를 둘러싸고 학계의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기자



◇진품여부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백제금동반가사유상.

"합금분석 결과 삼국시대 주조품 추정"

"발굴경로 불투명·조성시기 10년 이내"

中 불교조각사 연구 한눈에 본다

배진달씨 논저목록집 펴내

중국불교조각사에 대한 각국의 연구논문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중국불교조각사연구 논저목록〉(민족사刊)이 나왔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인 배진달씨가 엮은 이 책은 중국 불교조각의 도상학(圖像學)·양식·도상배경상의 문제 등 다양한 연구쟁점들과 연관해 크게 일반적인 내용과 도상, 주제, 그리고 시대별 지역별 석굴별로 한·중·일 3국과 구미에서 발표된 논문을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은 편자가 지난 92년부터 2년 6개월간 대만국립대학 예술사연구소에서 중국조각사를 공부하던 기간에 틈틈히 모은 것.

중국불교조각에 대한 연구는 19세기말 제국주의 시대에 서구열강이나 일본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는 시기별로 △서구·일본의 대륙진출을 계기로한 자료조사(1950년 전후까지) △중국인에 의한 자체조사(1950~80년대 초반) △외국학자들에 의한 연구로 대별된다.

대각국사비 역주등 실려

가산학보 4호 나와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의 학술지인 〈가산학보〉 제4호가 나왔다.

이번 논집에는 △신라 화엄종 북악(北岳)조사 희랑(希朗)(채인환) △각운의 〈선문염송설화〉 연구(석종진)등 논문 8편과 △개성 흥왕사 대각국사 묘지명(이지관)등 금석문 교감역주 3편등이 실려있다.

"원효사상 핵심은 화쟁아닌 中道"

강상원씨 동대박사 논문

원효가 저술한 금강삼매경론의 근간이 되는 수행과 실천원리는 일미관행(一味觀行)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상원씨(동국대 철학과 강사)는 94년도 동국대 철학과 박사학위논문으로 확정된 '일미관행에 있어서 中道觀에 관한 연구: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을 중심으로'를 통해 원효 철학의 본뜻이 화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중도를 중생들에게 시현(示現)함으로써 중생을 깨닫게 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즉 원효는 부처님 출현의 근본목적이 철저한 이론의 부정과 일승(一乘)으로 통일하려는 의지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효의 '일미관행(유·무와 斷·常의 二執을 떠나 중도의 실상을 관하는 법)'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觀하는 동시에 실천을 통해 자리이타행(自利利他行)의 보살행을 실천하면 성불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담은 수행방편.

고기가 물을 벗어나는 도리는

문 지난 5년여를 나름대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제 자신 하루의 행주좌와 중에 모든 것을 놓고 이른바 무심관을 닦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때 죽비 소리에 홀연히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처처에 부처님 나투심이 아닌게 없고 예가 바로 불국토로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물 속에서 자유스럽게 헤엄치고 노닐 수는 있지만 물 자체를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러면 물을 벗어나는 공부는 없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그걸 일컬어 중도라 하는 것인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독자·충남 예산〉

답 다 터진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이 법에는 물도 없고 배도 없고 돛대도 없고 청산도 없습니다. 정말 도리를 알았다면 더하고 덜함도 없는 색 공이 둘이 아닌 도리를 아셔야 하지요. 느낌만으로는 안됩니다. 실천이어야 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귀신 방귀 털을 더 먹이지도 않고 덜 먹이지도 않고 기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심, 무심에 꽤나 안간힘을 쓰신 모양인데 무심조차 놓아야 합니다. 구르면서 무심으로 살아져야지 무심에 안간힘을 쓰면서 무심이 되고자 한다면 무심이 아닙니다. 나오는대로 닥치는대로 다 놓아서 그릇이 비어야 흡연히 고개를 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자면 첫째로 내가 죽었다해도 둘째로 또 죽어야 할 도리가 있고 세번째로 또 죽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낳았으면 키워서 공부시킬 것 다 시켜야 사회에 나가서 사람노릇 하게 되듯이 이치가 그러합니다. 상대성의 원리를 다 파악했고 또 자기가 실천하고 체험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한마디를 해도 한 데로 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긍정적 생각을 하며 살려 하는데

문 스님의 말씀을 듣고 저 자신 '일체를 주인공에 놓고 맡긴다'는 생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힘든 일이 잘 해결된다든지, 몸 아픈게 낫는다든지 하는 것은 수차 경험했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항상 저 자신이 미혹에 빠지지 않게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한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 올바로 기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문영·부산 사하구 신평동〉

답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하는 생각까지도 놓아야 합니다.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가상한 일이고 또 부처님께서도 여러모로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참나에 이르려면 놓는다는 그 생각까지도 놓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수행방법을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참나를 진짜로 믿는다면 놓는다 안놓는다, 끊어진다 안끊어진다가 없습니다.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하늘같이 믿듯이, 청지기가 주인의 말을 무조건 믿듯이 그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순간순간, 생각생각마다 믿어야지, 놓아야지, 끊어야지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냥 믿는다는 마음 그대로 이겠지요. 그래서 놓는다, 믿는다는 생각이 진짜이면 24시간 끊어짐도 없습니다.

'놓아야지 놓아야지' 하다가 '아차, 그만 놓는다는 것을 까먹었구나' 하는 분도 있는데 진짜로 믿었으면 그 믿는 마음엔 시공이 없습니다. 24시간, 아니 한달을 잊고 지냈다해도 끊어진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철석같이 믿으면 부처님은 이미 내 마음과 둘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는 3천년이라는 세월의 틈이 벌어졌더라도 3천년전의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둘이 아니니 틈이 벌어진 것도 끊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놓는다 끊는다, 놓아졌다 끊어졌다가 중요한게 아니고 믿음이 근본입니다. 놓

지상상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제 그릇에 맞게 화두를 주시면…

문 스님, 저라고 내세울 것은 없지만, 또 저를 그릇에 비유하면 빈 것도 없고 비지 않은 것도 없겠지만 제 그릇에 한 말씀 담아주시면 화두로 삼을까 합니다.

〈이신유·충북 중원군 산척면〉

답 앞에서 질문하신 분께 귀신 방귀털 얘기를 했습니다. 화두라니요, 육근 육진 육식이 쉴 사이없이 찰나찰나 화하면서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화두 아닙니까?

한마음에서 천칠백공안이 다 나가고 마음을 알면 천칠백공안이 다 풀립니다. 분이 없어 문 찾기 어렵고 문이 많아 문 찾기 어려우니 헤가는 어디있고 달마는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조사님들이 하신 것을 흉내내려 하지 마세요. 흉내내려 하다보면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져 궁둥이가 아프다는 소리밖에 내지 못합니다.

佛身遍十方中

직지사 대웅전

佛身普遍十方中
(불신보편시방중)
三世如來一切同
(삼세여래일체동)
廣大願雲恒不盡
(광대원운항부진)
汪洋覺海妙難窮
(왕양각해묘난궁)
衆會圍遶諸如來
(중회위요제여래)
廣大淸淨妙莊嚴
(광대청정묘장엄)

부처님은 우주에 가득하시니
삼세의 모든 부처님 다르지 않네
광대무변한 원력 다함이 없어

한국 사찰의 주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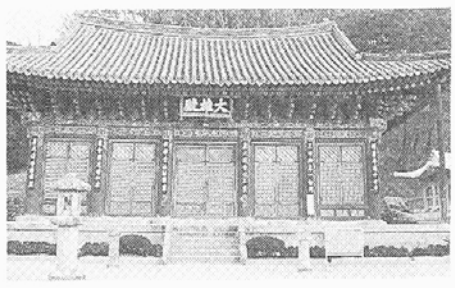


권 영 한

넓고 넓은 깨달음의 세계 헤아릴 수 없네
부처님 앞에 대중들 모여드니
넓고 깨끗하고 미묘한 장엄이로다

해설 직지사는 경북 금릉군 대황명 운수리에 위치한 신라고찰(눌지왕 2년, 418)이다. 창건자는 유명한 아도화상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절 이름인 「직지」와 관련한 이유도 세가지나 전한다. 첫째는 아도화상이 선산에 도리사를 세우고 황악산을 향해 "저쪽에 큰 절자리가 있다"고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설이다. 둘째는 고려초에 능여(能如)스님이 절을 중창할 때 자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측량을 했다는 데서 비롯됐다는 설이 있으며, 세째는 선종의 종지를 나타내는 '不立文字 直指人心 見性成佛'에서 유래된 것이란 설이다. 이 세번째 설은 직지사와 선종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황학산을 병풍처럼 두른 직지사는 최근 30년에 걸친 신·개축의 중흥불사를 통해 매우 큰 규모의 사찰로 면모를 일신시켰다. 사명대사의 출가 사찰이기도 한 직지사는 조계종의 제8교구 본사이다.



◇직지사 대웅전 전경.

광대무변한 부처님 공덕 칭송

대웅전의 주련은 한마디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이다. 고성 염불의 한 대목인 이 주련은 불교의 우주관과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 그리고 그것에 귀의하는 중생들의 거룩함까지를 포괄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안동 경안중 교사〉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 (02)737-0697

조문객 -접대음식-
•육개장·대구탕 外
•중이회·전유어·묵어볼 등
이조 924-9211
과방 925-4961
소요종 제공·봉사료원 각전

본지 36호 조계종(행자교육원) 광고 중 복장:행자복(남:회색)을 복장:행자복(남:괴색)으로 바로 잡습니다.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불, 열쇠고리 등
한남상사
Tel: 02)795-4083, Fax: 02)792-96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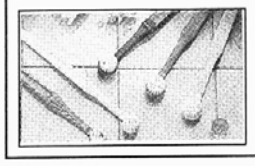
정통 중국어 속성강좌
냉·난방, 최고급 시설과 어학실습실 완비
중국 사범대학 교수 초청강의 책임지도
기초반, 회화반, 유학반, 비지니스반
■ 스님 유학반 모집(이미 출국유학중)
■ 학위및 자격취득 책임보장
■ JW 202 유학허가및 입학통지서 보장
■ HSK 시험대비 중점 강의
中國語 : 漢文 : 書法
평일 6:30~22:00(9월 학기 유학생 모집)
특별반 토➡14:00~18:00 일➡10:00~18:00
정기 학원생 취업보장(수시접수)
상담 : 代 (02) 246-8256, 246-8257
韓中語學院
원장 : 중국 할빈 사범대학교 경제학 교수
중국 학위 심사위원(한국인 최초)
관허 1670호 기업진흥상담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생기와 영업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화로 전해오는 바 생동감을 주는 산작품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실내외 벽화·병풍 및 액자화 작품
● 불사용작품(作品)은 주문에 의하여 봉사가로 특별 작품해드립니다.
시내 지방 외국 어디나 그림만 또는 표구작품을 해드립니다
우만(宇滿)화실
서울 용산구 청파1가동 173-1 전화 (02)3273-0081
온라인 국민은행 남영지점 822-24-0171-328(우만)

천혜의 기도도량
금수산 천진사
단양 팔경의 하나인
구담봉, 옥순봉을 굽어보며
금수산 품에 안긴
천혜의 기도도량 천진사
함께 기도하며 이 국토를
부처님 세상으로 가꾸려는
불제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있는 도량입니다.
조 용히 머물며 기도 정진하실 스님(비구니 스님이나 연로하신 스님도 좋습니다)께서는 연락 주십시오
법 당을 관리하면서 기도하실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연락처 단양 천진사 : 0444-423-2085
서울 법천사 : 02-762-2204

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칫솔
좌우로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 은라인 농협역삼동지점 096-01-239051(서클상사)
■ 전화 (02)556-3076-7 ■ 팩스 (02)556-3078

관음손

어린이 포교를 위한 불교용품·불교서적 판매
스님을 위한 신변잡화·염주 염가 주문제작
비디오·카세트·성법집·단체용품 기획제작
720-1147(~8)


72세 할거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쉽게 풀이된 처방「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학교수업식「강의 녹음」학습
대학 졸업과정	⊙ 친절한 1:1「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영·수)「비디오가정교사」특별제공 (1천만도화)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점수(비밀보장 PM 9: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최남에 자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원(남, 27세)드림-

학사학위취득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함만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

"절마다 한글대장경 갖췄으면"

수요 인터뷰

동국역경원 후원회장 석주스님



약력

- 1909. 3. 11 경북 안동 生
- 1928 출가, 범어사 강원대교과 졸
- 불국사 주지, 선학원 이사장, 동국역경원 부원장, 조계종 총무원장, 동국학원 이사, 중앙승가대학장 등 역임
-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 중앙승가대 명예학장, 칠보사 조실
- 저서 〈불교근세백년〉

올해로 창립 32년을 맞는 동국역경원의 활동을 뒷받침할 역경원후원회가 오는 21일 서울삼성동 봉은사에서 창립법회를 갖는다. 역경원후원회는 팔만대장경 모시기운동과 역경기금을 지원할 각종 계획을 수립, 실행할 예정으로 창립준비에 원력을 모으고 있다. 역경원후원회장으로 추대된 석주스님을 지난 10일 삼청동 칠보사에서 만났다.

우리시대 절대절명 불사

—역경사업을 적극 지원할 동국역경원 후원회가 만들어지고 스님께서 후원회장으로 추대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30여년전 역경원에 참여하신 것을 비롯해 남달리 역경에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감회가 크실 줄로 짐작됩니다.

▲역경원이 발족되던 해가 1964년이었어요. 운허스님이 역경원장을 하시고 나는 간사소임을 맡아 봤어요.

원래 역경원이 생기기 전에 운허스님을 모시고 역경을 했지요. 선학원에서 였는데, 그때 〈법화경〉 〈열반경〉 〈유마경〉 〈승만경〉 〈부모은중경〉 〈우란분경〉 등을 번역했지. 번역은 운허스님이 하시고, 나는 출판하는 일을 주로 했지. 그러다가 동국대학에 역경원이 생겨서 모두 그리로 갔어. 그때 번역한 경전들이 지금은 다 어디가고 〈열반경〉 〈유마경〉은 아직도 내가 갖고 있어요.

—역경원이 설립되고 초창기에는 대단한 열의와 사명감을 갖고 역경에 힘썼다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려 주십시오.

▲우리말로 된 대장경을 이제야 갖는구나 생각했지요. 해인사에 있는 고려대장경 1514부 약 6천권을 완간할 방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포교와 교육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들이 불은에 보답할 길이 이것이구나 하고 감격스러웠지요.

특히 운허스님의 원력이 컸어요. 운허스님은 어려서 한학을 배우고 박한영스님에게 불교를 배웠으니 역경을 아주 잘 했어요. 역경원은 운허스님의 원력으로 된거야. 물론 청담스님과 당시 김법린 동국대총장도 빼놓을 수 없지. 운허스님은 다시 태어나도 역경을 하겠다고 하신 분이야. 지금 역경원장인 월운스님이 그이 제자인데, 월운스님이 다 마쳐야 될 거야. 운허스님 같은 원력을 가져야 돼.

—역경은 우리시대 절대절명의 불사라고 생각합니다. 후원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역경원을 지원할 생각입니까.

▲절마다 우리글 팔만대장경 1질씩 모셨으면 좋겠어. 옛날에는 절마다 화엄경 한질씩 모셨는데, 요새 생긴 절에서는 그렇질 않더라구.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고 매일 조석으로 되뇌이면서 대장경 한질 모시지 않으면 말이 되겠어.

또 돈도 있어야 해. 번역료도 많이 올리고, 역경원 사람들 월급도 올리고 사람도 더 뽑아야 일이 제대로 되지. 후원회를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벌써 2, 3백만원씩 기금을 내는 불자들이 여럿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불자들 모두가 이른 불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회도 열 작정이예요. 신문에서도 많이 알려줘야 해.

—스님께서 이사장직을 맡고 계신 역경진흥회도 있는데 후원회를 만들면 같은 일을 하는 단체가 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야. 세상사람들 생김새가 다르고 말소리가 제각각이듯이 여기저기서 힘을 모으겠다면 좋은 일이지. 역경진흥회에서는 올해 5천만원을 역경원에 지원하기로 했어. 새로 생기는 후원회는 한글대장경 모시기, 책읽기운동을 하자는 것이니까 서로의 모자람을 메우는, 말하자면 상호보완하는 것이지.

2천만 불자가 후원 회원

—7월 현재 역경목표량 250권 가운데 174권이 우리글로 번역·출판되었습니다. 나머지 76권도 마무리짓기 위해 사부대중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역경에 임해야 할까요.

▲올해도 정부에서 3억5백만원, 역경진흥회에서 5천만원을 지원하는데 불자들의 협조가 없어서 일이 중단되거나, 역경에 전념해야 할 사람들이 책판매에 매달려 본업을 소홀히 하면 불자들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자들이라면 모두 후원회원이 돼야해요. 회원이 돼서 직접 한글대장경을 구입하거나 남에게 읽도록 권해야지요. 역경원에만 맡겨두고 모른체 해서는 안돼요. 그래서 나도 나이가 90이 가까워 오지만 역경원 사람들 열심히 하라고 나섰어요.

—이곳 칠보사 '큰법당'의 편액은 모두 한글로 씌여있어 특이합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불교성전 펴내는 일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나. 아무리 좋은 부처님말씀이라도 알아들어야 부처님말씀이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했잖아. 요즘 사람 백명 가운데 한문을 좀 안다는 사람은 절반도 안될거야. 한문을 몰라도 불법을 알도록 해야지. 법문은 왜 해. 부처님법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잖아. 경전도 편액도 마찬가지야. 봉선사 법당편액도 한글인데, 그쪽 것은 돌아가신 운봉거사란 분의 글씨야.

—스님, 오랜 시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정신이 가물거려 앞에 본 것은 잊어버리지만 요즘에도 책보고 건강해. 지난달에는 전라도 완도에도 다녀왔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글도 잘쓰고 포교도 잘해. 원만한 절에서는 유치원도 하잖아. 젊은 사람들이 나서니까 다 잘 될 거야.

정성운 기자

경전 읽기 등 촉진…역경 진흥회와도 협조

'불자들 역경 참여를'…불은에 보답하는 길

나의 수행일기



김유혁 <천태종 신도회장>

부친유훈 받들어 '참불자' 노력

'욕심이기고 부끄럼 없는 삶' 수행 과제

자신의 생활을 사실 이상으로 과장하여 수행을 거듭해가고 있는 양 꾸며간다면 이는 분명히 자기위장인 동시에 불망어(不妄語)의 계를 어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을 써가는 동안 나는 그 어느 원고를 쓸 때보다도 긴장한다. 몇번이고 자기 양심의 세계를 노크하게 된다.

그러나 한가지 위안이 되는 것이 있다면 이 글을 써가면서 자신을 되돌아 보는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는 점이 도리어 다행스러운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자기성찰(自己省察), 그 자체가 수행이라는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극복(自己克服)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의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인간을 가리켜 감정의 동물이라 말하기도 하며 거의 무한적인 욕구를 주관적으로 추구해가려는 배타적인 욕망의 결정체라고도 말한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보람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법제적인 요구에 능동적으로 순응할 줄 아는 충실한 종범자(從範者)로서 최고선(最高善)을 지향하여 아름답게 생활해가려 노력하는 자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나의 입장을 되돌아 보면, 지난날의 생활양식과 생각하는 방식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되뇌이게 된다. 내가 천태종 종단과 인연을 맺고 신도가 되고, 신도회 중앙회장이 되기까지는 곡절도 많았고 사연도 많았다.

나의 선친(先親)께서는 말년에 천태종에 귀의하여 4반세기 이상 온갖 마음과 정성을 쏟아오신 불자였다. 청장년시절에 그토록 화려했었던 부귀영화와 다양한 사회활동의 막(幕)을 스스로 내리시고 불교에 귀의하여, 특히 막내아들인 나에게 설법(說法)과 강론(講論)을 끊임없이 거듭하시곤 하였다. 막내아들의 입장이다보니 선친과는 35년이라는 일세대 차이가 있었다.

선친께서 한학을 위주로 하는 구학문 세대였다고 한다면 나는 구학문을 어느 정도 겸비한 신학문의 세대였다. 선친께서는 부자간에 서로 의사가 더 잘 접근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막내인 나에게 더욱 큰 관심을 두셨던 것 같다. 선친께서 베푸신 그 깊은 뜻도 모르고 연일 동분서주하여 가며 뛰어야 했었던 나의 입장만을 강변했었으니 어리석기 이를 데 없었음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다.

불가의 오묘한 세계를 차차 인식하게 되자 구인사를 위시한 전국의 천태종 말사가 나의 심사(心舍)인 양 느껴지고, 큰스님을 비롯하여 여러 스님으로부터 풍기는 체취는 녹음방초 우거진 계절의 자연향과도 같이 감도는 내음이었다.

젊은 시절의 나에게 선친께서 주신 각골훈(刻骨訓)은 바로 나에게 있어서는 수행의 지표가 되어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었다.

첫째는 욕기(欲氣)의 충동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수양을 계속해야 한다는 계훈(戒訓)이었다. 용돈이 궁하고 집안에는 우환이 있는 상황하에서 큰 돈뭉치를 길에서 줍게 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 돈에 대한 욕심 내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이 질문은 내가 50세의 나이를 훨씬 넘을 때까지도 수십차례 들었던 말씀이었기에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다.

둘째는 타계하시면서 남기신 3가지 유훈(遺訓)이다. 하나는 큰스님의 가르침을 잘 새겨들어서 익히라는 것이었고, 둘은 세인(世人)에게 부끄럼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고, 셋은 후손에게는 언제나 떳떳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운명직전에 몸속 깊이 간직하셨던 비상금 50만원을 내주시면서 그 유언의 뜻이 담긴 기념품을 만들어 모든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그 뜻을 받들기 위하여 선친 묘역에 유언비를 세워, 성묘 때마다 자손들이 함께 음미하는 길을 터놓았다.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가야 할 것이냐 하는 자기성찰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애써가고 있다. 이것이 수행의 한 단면이라고 말해도 좋을는지 모르겠다.

반야심경의 구절중의 하나인 심무가애(心無罣碍)하기 때문에 무유공포(無有恐怖), 즉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마음수행을 끊임없이 힘써야겠다는 것을 나는 자주 다짐한다.

과연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기건설(自己建設)의 과제보다 더 우선해야 할 일이 있을까? 이것이 일상적인 수행의 과제이자 수행의 내용이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승도인쇄 스티커 전문
불심과 공익정신으로 정성을 다해 제작합니다
문의처 (02)273-1239
대표 이 강 화 합장

청별인을 건강하게 건강인은 더욱 건강하게
당뇨 위장·변비·천식 등 질병상담
전화 (02)552-1470(대) / 팩스 562-3205
문의시 상담 및 자료우송
주소 강남구 역삼동 827-4 금성B/D 2층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수시접수 (지방수련장 상담 환영)
수련과정 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02)735-6795 · 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 해 창

구 직 광 고
사찰운전기사 · 男
가족과 함께 사찰에서 생활하며 일하고 싶습니다
연락처 042) 252-5422

합작
운동화 제조하는 분과 합작을 원합니다
불교도라면 더욱 환영합니다
봉제공 모집
나이 35~40세 女
카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을 모집합니다.
하는일
잠바, 배낭, 텐트 수리
자구교환, 침식제공
Rocky Mountain Footwear Ltd.,
P.O.Box 2607, Banff, AB. TOL OCO Canada
Phone (403)762-2032 / FAX (403)760-3111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 출판 운주사
·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TEL (02) 720-9372~3
· FAX (02) 723-0646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 (02)279-2715
팩스 (02)275-3739

스님 및 지도교사를 위한
찬불가 피아노 반주 3개월 완성
교과특성
계인지도 원칙, 레슨기간 자유선택, 찬불가를 통한 음악이론 및 실기지도, 시창청음 별도수업실시
· 등록: 수시접수(725-7527~9)
· 장소: 불교교육연구원(조계사 옆)
불교교육연구원

윤 조각실 (불교미술원)
■ 부처님 조성
■ 청동불 조성
■ 대불조성
■ 천불전
■ 개금
제14회 불교미술전 우수상수상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16-1
전화 713-3560, 214-8963

오직 일념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조각의 명문 동양석재
● 일찍이 홍익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 전통 불교문화 창달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작품 제작을 일념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사오니
● 대덕 스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 바랍니다.
조각가 이 규 동 합장
대 표 이 규 영
동양석재 주간: (0357) 541-4705 야간: (0351) 847-2001

명문대가집 현미먹는 비법
먹기어렵운 현미 이렇게 먹으면 된다!
2분도현미 (먹기 어렵다)
3분도현미 (먹기 쉽다)
4분도현미 (먹기 더쉽다)
5분도현미 (먹기 더욱 쉽다)
6분도현미 (먹기 더더욱 쉽다)
백미10분도 (씹는이 전혀 없다)
"입맛대로 주문,배달"
조상의 얼을 지키는 쌀바르게먹기운동중앙회
TEL. (02)231-5421~2
235-1846~7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21〉

雲法師 務學十門(운법사 무학십문) ⑥

⑦非博覽 無以據
비박람 무이거
高僧傳云 非博聞語無所據
고승전운 비박즉어무소거
當知今古之興亡 須識華梵之名義
당지금고지흥망 수식화범지명의
游三藏之敎海 玩六經之詞林
유삼장지교해 완육경지사림
言不妄談 語有典據 故 習鑿齒 讓道安曰
언불망담 어유전거 고 습착치 찬도안왈
理識通表 多所博涉 內外群書 略皆過覩
리회간충 다소박섭 내외군서 략개편도
陰陽算數 悉亦能通 佛經妙義 故所游刃
음양산수 실역능통 불경묘의 고소유인

⑦널리 살펴보지 않으면 근거할 수 없다.
고승전에 이르기를 널리 보지 않으면 말이 근거할 바가 없다하니
마땅히 고금의 흥망을 알아야 하고 모름지기 화범(중국·인도)의 말·뜻을 알아야 한다.
경·률·론 삼장의 바다에 놀고 육경(시·서·예·악·역·춘추)의 숲을 즐겨라

진종황제(중국 송나라)가 이시독(시독은 왕에게 강론하는 벼슬)을 불러 한 잔할 새
중용(시독의 이름)이 일어나 고사하며 아뢰기를 관가께서는 큰 그릇을 거두소서 하니
임금이 어인 까닭에 천자를 가리켜 관가라 하느냐 물은 즉
대답하기를 제가 장제(중국 위나라 사람)의 만기론을 살펴보니
삼황은 천하를 관으로 삼고 오제는 천하를 집으로 삼는다 했으니
삼황과 오제의 덕을 겸하였을 새 고로 관가라 한 것입니다.라 하였다.
임금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임금답고 신하다운 군신은 천년에 한번 만날까 한다더니
이는 학문이 몸에 가득함에 있음으라 옛사람의 말을 많이 아는 게 허물될 것은 없노라 하였다.

⑧不歷事 無以識
불력사 무이식
子 曰吾非聖人 經事久矣
자 왈오비성인 경사구의

말에는 거짓이 없고 전거가 있어야 하니
서적두루 읽으며 생각 간결히 다스려야

말에는 거짓이 없고 전거가 있어야 한다. 고로 습착치가 도안선사를 찬탄하여 이르되
생각하는 바 마음을 간결하고 바르게 다스리며 널리 읽은 바가 많아 내외의 여러 서적을 두루 보고
음양산수(천문·역서·지리등 자연이치)에 다 능통하며 불경의 심심미묘한 뜻에 오래전부터 자유자재하다 하였다.

眞宗皇帝 詔李侍讀欽
진종황제 소이시독음
仲容 起謝對曰陛官家 徹巨器
중용 기고사왈고관가 철거기
上 問何故 謂天子爲官家
상 문하고 위천자위관가
對曰 臣 嘗記蔣濟萬機論
대왈 신 상기장제만기론
言三皇 官天下 五帝 家天下
언삼황 관천하 오제 가천하
兼三五之德 故曰官家
겸삼오지덕 고왈관가
上 嘉曰眞所謂君臣 天載一遇
상 희왈진소위군신 천재일우
此 有學問藏身 多識前言 無所羞矣
차 유학문장신 다식전언 무소루의

泊入太廟 每事問者 敬戒無斁 問失法道
박입태묘 매사문자 경계무우 망실법도
羅遊聖壁 寂置不知 方辨難賢 劫狀罔辨
나한수성 적염부지 방삭수현 겁회망변
多見而識知 未見矣昧矣
다견이식지 미견의매의

⑧일을 겪지 아니하면 아는게 없다.
공자이르되 내가 성인은 아니나 경험이 오래이다 하며
태묘에 들어가 매사를 물은 것은 걱정할 게 없음을 경계하여 법도를 잃지 아니하려 한 것이다 하였다.
나한이 비록 성인이나 묽은 소금(남극의 우물에서 난다는 소금)을 알지 못하고 방삭(동방삭)이 비록 현인이나 이 세상이 무너지는 때(겁회는 그렇게 타고 남은재)를 가리지 못한다.
많이 보아야 알고 보지 못하면 어둡다.

龍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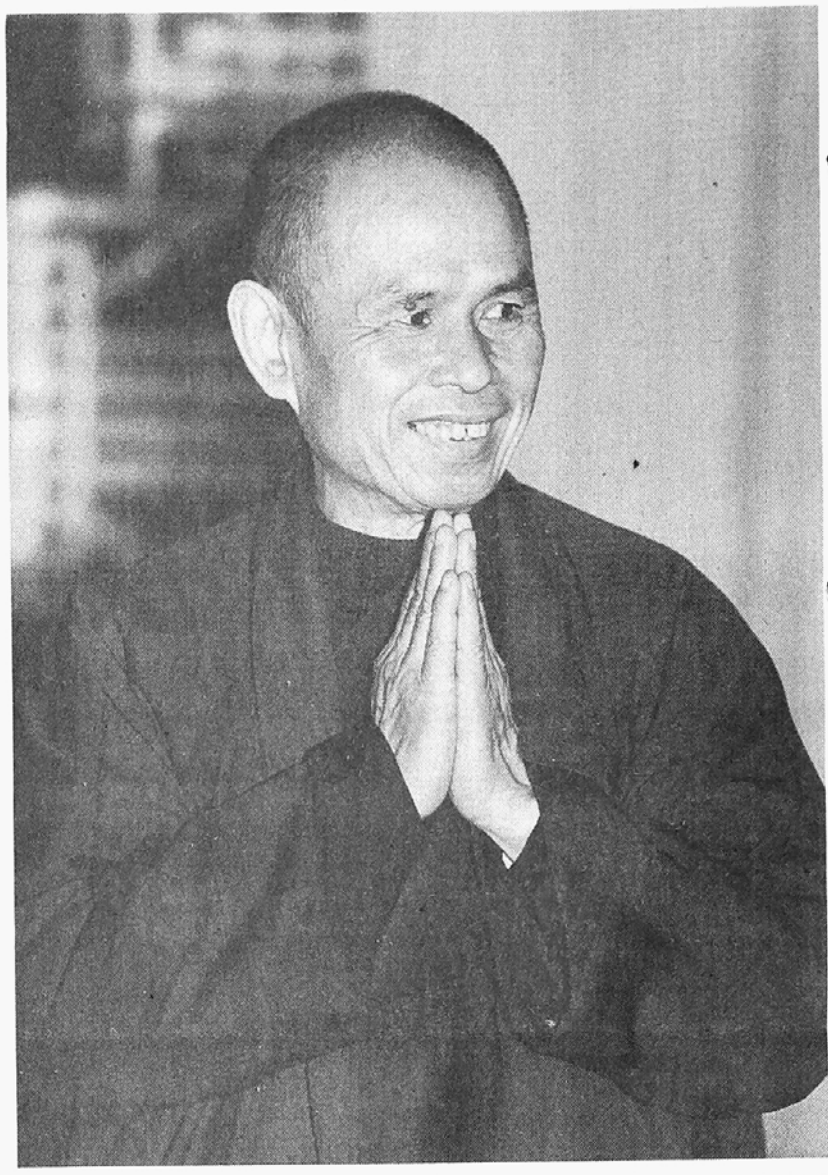
29호 치문경훈 연재번호 〈12〉가 중복되었기에 36호에서 치문경훈 〈20〉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여름 특집 해외 고승 지상법석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틱낙한 스님
〈베트남 선사〉

스님은 1926년 베트남 중부지역에서 태어나 어려서 출가했다. 조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사회봉사를 위한 청년학교와 반한 불교대학, 접현증을 창설하여 평화운동에 힘을 기울였다.
1967년 마틴 루터킹에의해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천거되기도 했으나 평화를 위한 굽히지 않는 의지와 솔직한 표현으로 고국에 되돌아 가는 것이 금지됐다. 스님은 프랑스에 망명, 그곳에서 난민을 위한 활동과 명상을 위한 작은 공동체 지도자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 〈Being Peace〉등 60여권이 있다.



30년전 내가 아직 투 휴 파고다(Tu Hieu Pagoda)의 사미승이었을 때, 설거지는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승려들이 사찰로 돌아오는 안거기간 동안 두 명의 사미승이, 때로는 100명이 훨씬 넘는 대중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그릇 씻는 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비누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곤 잿가루, 벼 껍질, 야자 껍질이 전부였습니다. 특히 물이 얼음같이 차가운 겨울에 산더미같이 높이 쌓여 있는 그릇을 씻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릇을 문질러 씻기 전에 큰 솥에 물을 먼저 데워야 했습니다. 오늘날 부엌에는 물비누도 있고, 특별한 수세미도 있으며, 게다가 온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설거지를 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설거지를 빨리 끝낼 수 있으며, 그런 뒤 앉아서 한 잔의 차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빨래를 하지만 세탁기가 등장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 씻는 기계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 몰두 한다는 자체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는 설거지만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자신이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사소한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요점입니다. 내가 그곳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경이로운 현실입니다. 나의 호흡을 따르면서 내가 이곳에 있음을 의식하고, 내 생각과 행위를 의식하면서 완전하게 나 자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과도에 이리 저리 휩쓸려 다니는 병과 같이 생각없이 떠돌아 다닐 수 없게 됩니다.

미국에 짐 포리스트(Jim Forest)라는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8년전 내가 처음으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가톨릭 평화회(Catholic Peace Fellowship)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짐이 찾아 왔습니다. 나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여러 사람들과 앉아서 차를 마시기 전에 항상 설거지부터 먼저 합니다. 어느날 저녁 짐은 자기가 설거지를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물론이지요. 하지만 설거지를 하려면 설거지 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짐은 말했습니다. "왜 이럽니까. 당신은 내가 설거지도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거지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릇을 깨끗이 하기 위해 설거지를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 설거지를 하는 것입니다." 짐은 아주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난 두번째 방법인 설거지를 하기 위해 설거지를 하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짐은 설거지를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일주일동안 그에게 그 '책임'을 위임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한 잔의 차만을 생각한다면, 그리하여 그릇들을 골치거리인 양 서둘러 대강 대강 씻어 버린다면, 우리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 설거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릇을 씻는 동안 우리는 살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싱크대 앞에 서 있는 동안, 기적과도 같은 삶을 완전히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설거지를 할 수 없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한 잔의 차도 역시 마실 수 없을 것입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우리는 우리 손안에 쥐고 있는 찻잔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딴 생각만을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미래로 빨려 들어가게 되며 단 한 순간도 삶을 제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불교에 의하면 인간은 다섯 가지 집합체(五蘊)로 구성되었습니다. 몸을 의미하며 다섯 개의 감각기관과 신경조직을 포함하는 형상(色)과 느낌(受), 지각(想), 정신적인 형성(行)과 의식(識)입니다.

이가운데 느낌과 지각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가지 느낌을 지닙니다. 어떤 때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 대표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광고국 02-737-0692 •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 전화 051-634-5114 •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 전화 062-375-9986 •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 전화 053-427-8008
경기지사 • 전화 032-613-4027 •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 전화 0416-856-3280

성하출판 TEL 778-6826~7 FAX 778-6828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편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 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내가 도를 지켜 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본문 중에서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정소에 그대가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황광우 | 이경옥 옮김
신국판 | 전2권 | 각권 7,500원

해외 고승 지상법석

여름 특집

인간 고통의 근원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남이 고통 받고 남이 잘못하면 내가 고통 받으니 안락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실체와 마음의 감지 하나될때 살아있는 수행 설거지 하면서도 행위의식하면 제대로된 삶

는 행복하고 어떤 때는 슬픕니다. 어떤 때는 화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리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느낌들이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가득 채웁니다. 마치 우리가 느낌의 흐름을 취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의 느낌이 한동안 지속되다가 또 다른 느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느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명상을 수행합니다. 불교심리학에 대해서 가르치는 아비달마(Abhidharma) 학파의 글에서는 그러한 느낌들은 세 가지 종류, 즉 유쾌한 것과 불쾌한 것, 그리고 중립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시를 밟을 때 우리는 불쾌한 느낌이 듭니다. 어느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참으로 머리가 좋습니다'라든가 '당신은 아름답습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유쾌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곳에 앉아있을 때에 유쾌하지도 불쾌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비달마 학파의 문헌도 읽어보고 아비달마 불교를 수행해 왔는데도, 그러한 분석이 옳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소위 중립적인 느낌은 매우 유해합니다.

당신이 우아한 모습으로 앉아서 호흡선을 하며 웃음을 띄울 때 당신은 매우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앉아서 편안한 느낌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차리며 치통 없이 모든 형상과 색깔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것은 경이롭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일하는 것을 불쾌히 여기며, 일할 때 고통을 느낍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일을 못하게 하면 불쾌하게 여깁니다. 나는 여러 종류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가 책을 제본하는 일, 정원에서 일하는 것, 시 쓰는 것, 걷기선의 수행,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못하게 하면 나는 매우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는 직업이 유쾌합니다.

유쾌와 불쾌는 우리의 관점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중립적인 느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시력을 잃은 사람은 볼 수 있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며, 그가 갑자기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기적적인 선물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여러 형상과 빛깔을 볼 수 있는 눈을 지닌 우리들은 자주 불행을 느낍니다. 우리는 수행하고 싶으면 밖으로 나가 나뭇잎과 꽃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구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 여부는 우리의 지각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치통을 앓을 때는 치통이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당신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치통이 없는 데도 당신은 때때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각을 수행하면 흡연히 당신은 매우 부유하게 되고 매우 행복하게 됩니다.

불교의 수행은 인생을 즐기도록 해주는 현명한 길입니다. 행복이 부여됩니다. 제발 그 행복을 받으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 중립적인 느낌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유쾌한 느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좌선과 걷기선 안에서 그것을 수행합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우리 모두가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사회가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며, 모든 생물(生物)이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불교사원의 선방(禪房) 밖에 걸린 현판에는 네 줄로 된 글이 새겨 있습니다. 그 마지막 줄은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날짜와 시간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시간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날과 시간을 낭비해 왔습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나 우리의 생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매 순간을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선과 걷기선을 수행할 때,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하는 방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루의 나머지 시간 중에도 우리는 수행합니다. 그것은 조금 어려우나 가능합니다. 앉는 것과 걷는 것이 우리의 일상 안에서 앉지 않거나 걷지 않을 때에도 적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명상의 기본 원리입니다.

지각은 실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개념들을 포함합니다. 당신이 연필을 바라볼 때, 당신이 그것을 감지하는데 그 연필자체는 당신 마음 안에 있는 연필과 다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나를 바라볼 때 내 자신 안에 있는 나와 당신이 감지하는 나와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올바른 만남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밤하늘을 바라볼 때 당신은 빛나는 별을 보고 그것을 향해 웃음을 띄웁니다. 그러나 과학자는 당신에게 그 별은 그곳에서 이미 천만년 전에 사라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우 아름다운 황혼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해가 아직도 우리와 함께 있는 것으로 여겨 매우 행복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 그 해는 이미 8분 전에 산 뒤로 넘어갔습니다. 햇빛이 우리의 위성에 도달하는 데는 8분이 걸립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가 그 해를 이 현재에서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과거의 해를 바라볼 뿐입니다.

석양에 산보를 하다가 당신은 뱀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에 회전등을 비출 때 그것은 동아줄에 불과합니다. 우리 지각의 오류 때문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오해를 갖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당신에게 언제나 화를 냅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간 고통의 중요한 근원입니다.

어느 안개 낀 아침, 한 사람이 강물을 거슬러 보트를 젓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강물을 따라 내려오는 보트를 보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라고 외쳤는데도 그 보트는 그에게 부딪혀 그의 보트까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매우 화가 난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가 자세히 보니 그 보트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보트는 저절로 풀어져서 아래로 흘러 내려왔었습니다. 화가 사라지고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우리의 지각이 올바르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나쁜 감정을 일으킵니다.

불교는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이해하여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나쁜 감정에 이끌리지 않게 되도록 만사를 깊게 바라볼 수 있게 가르칩니다.

"지각이 올바르면 감정에 끌리지않고 만사를 깊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33

양 형 진

하나의 세계 Ⅱ

양자역학 '일상'에 갖혀 있던 사고 전환 불법의 세계가 30억년 한정시야 확장

옛날에 '일상'과 '확장'이라는 두 새가 살고 있었다. 이 새들은 물 밑을 투시할 수 있는 좋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새에게는 한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일상'이라는 새는 자신의 눈 아래 수직이 되는 곳 밖에는 볼 수 없었지만, '확장'이라는 새는 수직이 되는 곳 뿐만 아니라 그 주위까지 볼 수 있었다. 말하자면 '확장'이라는 새는 '일상'이라는 새보다 확장된 시야를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상'이라는 새는 굴절현상을 알지 못하였지만 '확장'이라는 새는 이를 알고 있었다. (빛이 물 속으로 들어갈 때에는 일반적으로 굴절현상이 나타나지만, 빛이 수직으로 들어갈 때에는 굴절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고전 물리학이 기술하는 세계는 '일상'이라는 새가 보는 세계에 해당하며, 현대물리학이 기술하는 세계는 '확장'이라는 새가 보는 세계에 해당한다. 물론 '확장'이 보는 '일상'이 보는 세계를 그 안에 포함한다.

물리학을 말하면서 흔히 고전 물리학은 거시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고 양자역학은 미시세계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실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양자 역학은 거시세계 뿐만 아니라 미시세계까지 다룰 수 있는 학문이다. 고전 물리학에서 거시세계로 한정되었던 시야가 현대물리학에 와서 미시세계로 까지 확장되게 된다. 이 확장된 시야에서 보면 일상적인 세계에서 비롯된 소견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비유하자면 '확장'이라는 새가 보는 굴절현상 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양자역학 뉴턴역학이 기술하는 세계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미시와 거시로 세계가 양분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의 세계가 존재할 뿐이지만 세계를 보는 우리의 시야가 확장되었을 뿐이다. 마치 핀셋만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기중기를 사용하게 되면 무거운 물체까지 들어 올릴 수 있어 작업 영역이 확장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연필을 들어올리려고 기중기를 쓴다거나 거시세계의 간단한 문제를 푸는 데에 양자역학을 쓴다면,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로울 것이다. 그런 이유로 거시세계의 문제에 양자역학을 쓰지 않는 것이지, 세계가 양분되어서 양자역학을 못 쓰는 것은 아니다.

'일상'이 보는 세계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공간 내에서 경험하는 세계이다. 우리의 인식은 이 경험 세계에 한정되어 있다. 마치 뉴턴 역학의 신봉자들이 수백년 동안 뉴턴 역학의 세계관에 갇혀있었던 것과 같다.

지상에 최초의 생물이 나타난 이후 30억년 이상의 오랜 진화의 시간을 거쳐 오늘의 인간이 지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경험세계, 우리의 의식세계가 형성되었으니, 일상의 시야에 갇혀 있었던 역사는 뉴턴 역학의 수백년 정도가 아니라 수십억년이다.

이 30억년 동안 한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켜 준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그 확장된 세계가 부처님이 펼쳐보이신 불법의 세계이다. 이 확장된 세계에서는 일상 세계에서 비롯된 소견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정경이 전개된다.

불법의 세계가 우리 일상의 세계와 다른 세계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 두 세계가 다른 세계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불법의 세계, 열반의 세계, 반야의 세계, 공의 세계는 일상의 세계, 생멸의 세계, 미혹의 세계, 색의 세계를 그 안에 포함한다.

공의 세계를 의심하고 두려워 하는 것은 30억년이라는 업에 의해 형성된 근원적 무지, 좁은 소견 때문이다. 그러나 넓은 안목에서 보면 굴절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듯이, 오직 하나 공의 세계가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세계일 뿐이다.

굴절현상이 보편적인 것이지만 물 위에서 수직으로 보면 굴절현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처럼, 우리 세계는 근본적으로 공이지만 아주 특수하게 색의 현상이 나타나며, 이 색의 세계에 고정된 좁은 시야의 눈은 보다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의심한다. 30억년 동안 그것만 보아왔으므로 그것은 절대적이고 전체인 것으로 안다. 불법을 모르는 중생은 '일상'의 새와 같다.

〈고려대 교수 · 물리학과〉

1969년, 월북을 기도하다 휴전선에서 사살된 한 젊은 스님의 충격적 구도소설!

下山

이·홍·주·스·님·장·편·소·설

젊은 수행자의 고뇌와 파계,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이야기!

1969년, 유난히 키가 크고 바짝 여윈 한 젊은 스님이 민통선 철책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월북을 기도했던 홍주 스님의 겉망 속에는 자신의 소설 〈下山〉 한 권이 들어 있었다.
홍주 스님은 왜 월북하려 했을까? 스님은 왜 자신의 소설 〈下山〉만을 북한 땅으로 가져가려 했을까?
어떻게 스님이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었을까?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은 채 금서로 묶였던 문제의 소설 〈下山〉은 28년 만에 다시금 햇빛을 보게 되었다.


서옹이/이홍주스님

화제작 〈下山〉에 주어진 문학적 평가

- 작가가 직면했던 신앙과 관능, 교단과 사회와의 모순과 갈등이 여실히 표현되어 대담하게 던져진 문제작! — 1967년/시인 趙芝薰
- 젊은 수행자가 겪는 한국 불교의 고뇌상이 절절히 묘파된 본격적인 불교 전위 문학! — 1967년/작가 金東里
- 스님들과 산사의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묘사력이나 삶에 대한 긴 사색의 진주알 같은 대화들이 독자를 사로잡는 구도소설! — 1995년/문학평론가 임헌영
- 구도승의 타락과 고뇌를 실감나게 묘사하여 한국 불교에 경종을 울린 소설! — 1995년 5월 28일/한국일보

불지사 편집부 (02) 277-2676 영업부 (02) 263-1941

4×6판/양장제본/248쪽/값 5,500원
*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생활 한자와 예쁜 글씨를 함께 배우는

每日漢文

매월 4,000원
일시불 값 10,000원
통신 주문제 실시

漢字를 모르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비결이 있습니다.
국어 사전 속에 漢字로 된 우리말이 70%
가정과 직장에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지.
3개월 코스!

주요내용 : 명심보감 해설 / 고사성어 / 일반 상식 / 1일 1언(금언)

도서출판 한넋다비드

전 화 : 551-8474~5
우체국 : 013805-0016528
국민은행 : 067-0170-091

고은 불교 대하소설

동 행



36

바위너설이 자연스럽게 벽을 만들어 주어서 불이와 합두만이 바다 쪽으로만 확 열려진 낙조의 골무릅을 바라볼 수 있었다. 불이는 피리를 손에 쥔채 바로 옆의 합두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 말하는 것처럼 바다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무욕도에 오기 전부터 이 세계란 우리가 사는 세계만이 아니라는 것을 어렵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짐작을 넘어서 하나의 신념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서방정토니 지옥이니 육도(六道) 윤회 따위를 귀에 쟁쟁하게 들을 때마다 도리어 지난 날의 내 신념보다 장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이 말은 합두의 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잠시 멈추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귀만 열리고 있었다.

불이가 말을 이었다. 여전히 바다 쪽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라고 그는 두사람이 함께 있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지금 저 바다 너머로 해가 지는 데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해가 지는 쪽으로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아주 머나먼 곳의 서쪽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세계가 이런 바에는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와 인간이 죽은 뒤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망각과 공포 때문에 현재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니 인간의 진짜배기 무지야말로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

"나는 오래동안 그 때문에 꿈 속에서도 우주의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닌 적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의 일이었지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나를 의원(醫員)에게 데려가셨지요. 내가 혹시 실성(失性)한 사람은 아닌가 해서…."

"……."

"바로 이런 것들이 나를 시를 읊는 일로 살게 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니 이제는… 이곳의 중이 되게 한 바이겠지요."

"다른 세계 없이 어찌 이 세계가 있겠어요?"라고 합두가 한 마디를 던지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강하였다.

가모니불이 도솔천에서 미륵보살과 함께 살고 있을 때 미륵보살이 내려올 사바세계를 그가 먼저 사바세계에 태어나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이양받은 것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그런 보살은 아닐지언정 나 하나를 위한 공부에도 내가 이승에 있기보다 다른 세계에 새로 태어날 서원을 실천하는 것은 내 의지의 자유입니다."

"그토록 다른 세계를 원하십니까? 불이스님."

"원합니다."

"그것은 이승에 대한 어떤 비관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는 다른 세계를 꿈꾸는 그 일만이 지금의 나입니다. 나라는 것의 헛된 바를 수 없이 때려 부수어야 하는 일이 곧 다른 세계에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이스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에 대한 사명감은 것이 없습니까? 이승을 버리고 어찌 쉽사리 저승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저승도 이승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불이는 더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그에게 할 말이 아직 남아있다. 얼마든지 그의 말은 합두를 설득할 만한 절실성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말을 쏟아내는 일은 말의 진실을 줄이는 것이 된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하기야 다른 세계가 부르는 소리를 듣는 중생도 이승에는 있는 것이겠지요" 라고 합두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 모처럼 미소를 머금었다.

"그만 일어섭시다. 저녁 약석(藥石-夕食) 때가 다 되었나봅니다."

>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하는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서원대로 되기보다 우리가 남긴 업장에 의해서 우리 서원과는 상관없이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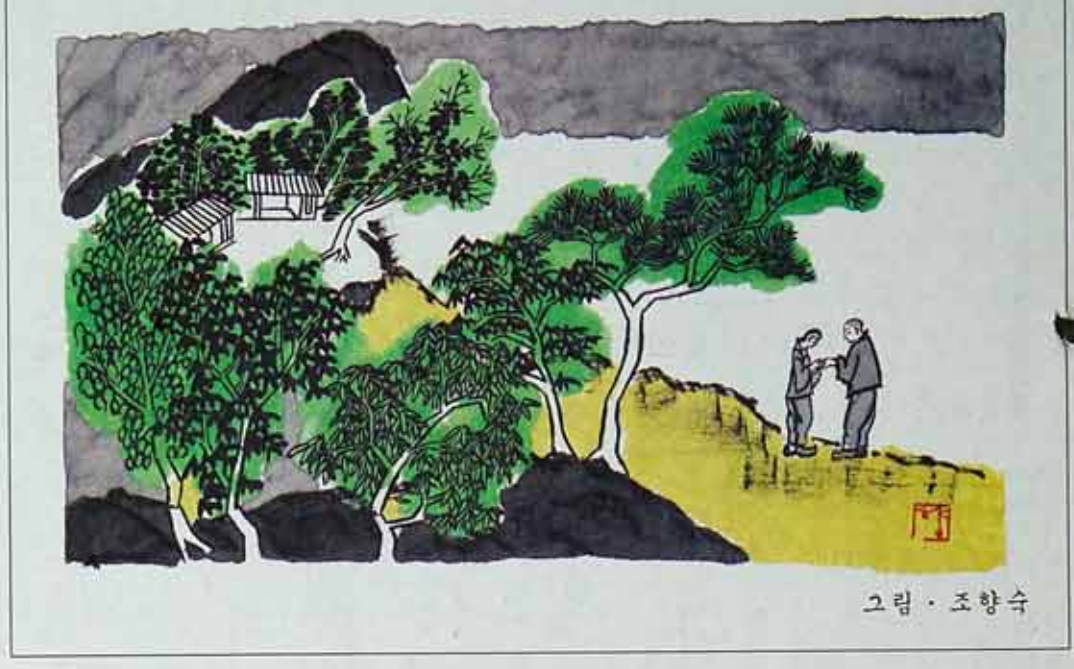


그림 · 조향숙

마침 종이 울렸다. 합두가 먼저 갔다. 그녀는 요즘 우녀의 요청에 따라 후원의 취사나 설거지 등의 일을 번갈아가며 하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며칠동안은 후원 일에 손을 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저녁공양은 아주 간단하였다. 밤의 정진을 위해서 몸안을 가득 채우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밥 반그릇과 된장국 뿐이었다.

이런 시간 뒤에는 한 시각쯤의 소요 시간을 두고 있다. 제각기 산에 오르거나 바닷가 바위나 모래밭을 거닐 수 있는 것이다.

불이가 다시 아까의 바위너설 쪽으로 갔다. 그런데 거기에 합두가 먼저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아!" 하고 불이의 입에서 짧은 감탄사가 나와야 하였다.

"저승에는 이런 바다가 없겠지요?"

"이런 바다보다 더 엄청난 바다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들은 풍월입니다만 이승에서 다른 세계를 말하는 것은 그러나 이승의 그것을 확장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옛날의 구사론(俱舍論)이 그리고 있는 수미산 밑의 세계도 사바세계가 그안의 작은 세계이기는 하지만 사바세계의 산과 바다와 다른 것이 아닌듯 합니다."

"그런 세계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그곳으로 간다는 의식이 있겠습니까? 그저 죽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어떤 중생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하는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서원대로 되기보다 우리가 남긴 업장(業障)에 의해서 우리 서원과는 상관없이 되는 것입니다."

"불이스님!" 이라고 합두가 그 시꺼먼 검정딸기같은 눈을 빛내면서 불이에게 다가서는 것이었다.

"이런 소리나 늘어놓는 일은 그만 둡시다. 저도 불이스님과 함께 다른 세계로 가고자 합니다. 남개와 수레 없이 갈 수 있는 세계로!"

> **"저도 불이스님과 함께 다른세계로 가고자 합니다"**
> **처음으로 손을 잡는 그 가슴 떨리는 결의야말로**
> **친애의 첫 걸음이라 해도 부족한 것이었다**

그들은 어느덧 서로 손을 잡고 있었다. 처음으로 손을 잡는 그 가슴 떨리는 결의야말로 그것을 애욕이라고 해도 맞지 않고 그것을 친애(親愛)의 첫걸음이라 해도 부족한 것이었다.

"아 합두스님!" 이라는 불이의 감격적인 이름 부르기는 차라리 입속에서 나올 수 없었다.

파도소리 가운데 그들은 어떤 말도 더이상 나올 수 없이 서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부동자세 때문에 서로 부동켜 안을 수도 없었고 서로 떨어질 수도 없었다. 이미 그들은 마음 속에서 이승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때였다. 인담이 그들의 바위 뒤에서 이제까지의 일을 다 듣고 있다가 "큼!" 하고 인기척을 보냈다. 그제서야 두사람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현실로 돌아와 있었다. 과도 한 자락이 저쪽 바위 끝을 쳐서 그쪽에 있는 인담의 아랫도리를 적셨다.

두사람은 인담쪽으로 갔다. 그들은 처음에는 당황하였다. 그러다가 아주 당당해지고 있었다.

"두 스님의 사연을 잘 들었습니다."

"들은 것이 아니라 엿들은 것이겠지요"

그때 합두가 말하였다.

"인담스님께서는 우녀스님과 떠나시겠습니까? 잠지" 라고.

그러자 인담이 노여움을 일으켰다.

"아니… 아무런 말이나 함부로 내뱉는 것이 입이오? 이 무슨 망발이오?"

"망발이 아닙니다. 우녀스님이 영험(靈驗)이 많고 신통(神通)의 힘을 가지신 분인줄 압니다만 저도 그 스님만한 짐작은 할 줄 압니다."

이런 말은 그동안의 합두로 보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상태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아무튼 큰방으로 갑시다" 라고 인담이 그들에게 간절히 말하였다.

세 사람이 갈대정사 큰방에 가까이 갔을 때는 이미 저녁 예불을 끝낸 뒤였다. 우녀가 문을 열어둔 방안에서 수원 수월 파련과 앉아 있었다.

우녀가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며 한 마디 중얼거렸다.

"무욕도는 이제 사람없는 섬으로 돌아가겠구나."

하지만 그녀와 한동안의 파직(破戒)을 일삼던 세 사람의 남자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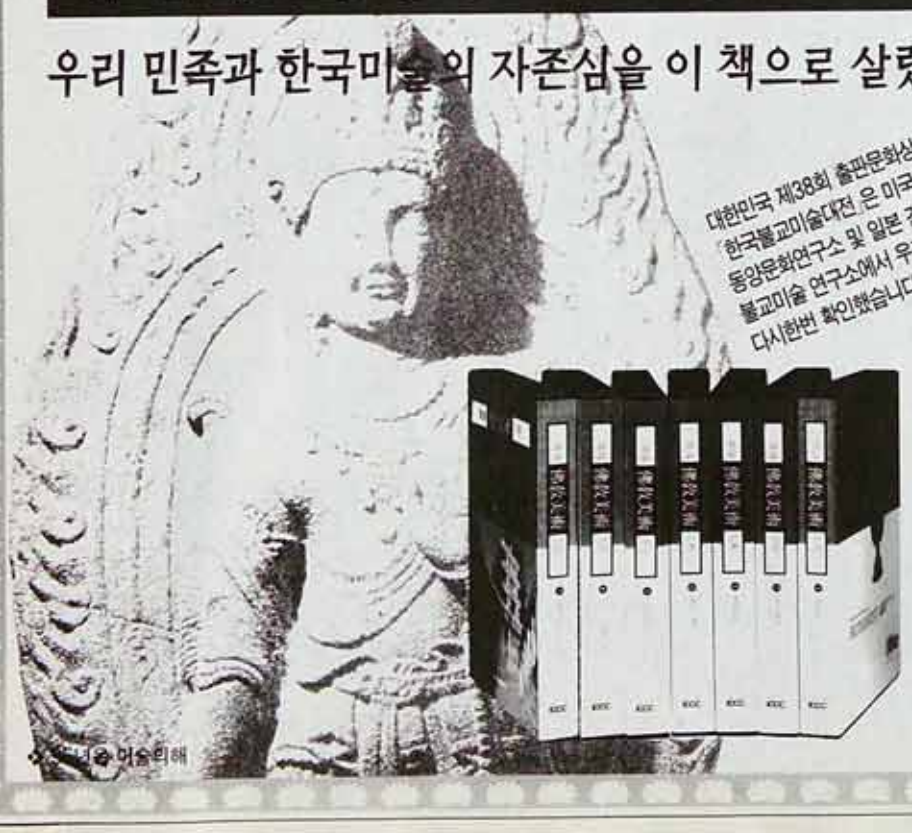
그들은 밤 좌선시간이 되어서 서로 조화를 이룬 마음이 아닌데도 각자 제 자리의 방석으로 가서 차분히 앉았다. 하지만 합두에게는 어떤 무념(無念)의 상태도 누릴 수 없는 군맹(群萌-많은 생각)으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앞으로 그녀가 가야 할 다른 세계로의 역참을 미리 익혀가는 것이었다.

하나의 거울이 나타났다. 그 거울은 정파리(淨玻璃)라는 수정(水晶)으로 된 거울이었다. 그렇다면 그 거울이 있는 곳은 염마(閻魔)의 세계가 아닌가.

韓國佛教美術大典

우리 민족과 한국미술의 자존심을 이 책으로 살렸다!!



대한민국 제38회 출판문화상에 빛나는 한국불교미술대전 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및 일본 경도대학 부설 불교미술 연구소에서 우리문화의 역량을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 한국 불교미술 집대성.
■ 팔만대장경 이래 한국불교문화사 최대의 불사.
■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 불교미술
■ 국문판에 이어 일어판, 영문판도 곧 이어 발간.
■ 한국출판사상 보기드문 대기획에 최고급 인쇄.

○ 8절판(26.5×36㎝)의 초대형크기
○ 각권 312~376페이지의 올컬러 인쇄
○ 본문 180g의 스노우화이트지 사용
○ 호화양장제본에 낱권케이스, 금박 포클로스
○ 정가 630,000원(전7권)

韓國佛教美術大典 중요내용

① 佛教彫刻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불교조각사와 함께 컬러도판을 싣고 도판해설을 하였다.
② 佛教繪畵 한국불교회화를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컬러도판과 함께 도판해설을 실어 이해를 도왔다.
③ 佛教建築 사찰의 건축과 함께 불탑, 부도, 불비 등 불교건축을 논하고 컬러도판과 도판해설을 실었다.
④ 佛教工藝 불교의 공양구, 의식구, 사리기, 기와 등의 불교공예품을 서술하고 컬러도판과 도판해설을 실었다.
⑤ 現代佛教美術 오늘날에 제작된 대표적 불교미술품을 게재하고 대표적인 불교미술가를 작품과 함께 소개하였다.
⑥ 世界의 佛教美術 우리나라와 함께 불교미술이 발달된 인도, 중국, 일본, 몽고, 동남아 제국의 불교미술의 컬러도판으로 소개하였다.
⑦ 佛教美術資料集 불교미술에 필수적인 불교미술용어사전과 함께 불교미술품의 실측도와 각종 문양을 실었다.

현대불교 구독자 사은행사로 선착순 100명에 한하여 전권 630,000원을 490,000원에 현금 및 할인 분할해 드립니다.
법보시용으로 최적입니다.

주문처
현대불교신문사 사업부
TEL:(02)737-0695
FAX:(02)737-0696

공급처
(주)한국색채문화사
TEL:(02) 333-0051
FAX:(02) 338-7781

산·바다·강에서 더위 이기며 부처님 만난다

'여름 캠프는 포교마당'

무더운 여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체험할 기회가 산과 바다에서 다채롭게 마련된다. 여름 방학을 앞두고 교계복지관과 포교단체들이 독특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되는 여름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여름 산사에서의 수련대회를 통해 불심을 증장시켜 오던 것과는 달리 여름캠프는 산과 바다, 강가에서 체험중심으로 마련되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 불자들의 '입맛'을 당기고 있다. 교계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름캠프의 특징은 △인내력 키우기를 통한 심성계발 △순례를 통한 국토사랑 기르기 △유적지 답사를 통한 역사 배우기 등.

해를 거듭할수록 개설단체가 늘어나 프로그램도 매우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는 여름캠프는 불교적 수행 체험만을 강조하지 않고 현장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심성계발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 때문에 여름캠프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포교마당으로도 각광 받고 있다. 현재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 여름캠프는 20여개에 이른다. 〈도표참조〉

이들 캠프는 2박3일내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전문가들에 의해 짜임새 있게 마련되고 있다.

특히 역사기행, 국토순례, 체육캠프, 가족캠프등은 청소년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잊혀져가는 가족윤리의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환경캠프와 도전과 의지력을 길러주는 극기캠프도 부모님들에게 호평 받는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독특한 프로그램을 단일화시켜 특색있게 진행되는 여름캠프는 범어사, 표충사등 사찰 주변에서도 마련되고 있어 현장학습과 사찰수련회의 성격을 융합시키기도 한다.

지난해 극기훈련캠프에 참가했던 한 중학생불자는 "자연 속에서 나의 인내력을 키우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좋았고 좋은 친구들을 사귄 것은 잊지 못할 추억"이라며 "올해에는 엄마와 동생과 함께 가족캠프에 참가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복지관등 20여단체 어린이·청소년 참가자 모집

자연체험·심성계발·국토사랑 순례등 프로 다채

주관단체	캠프명	장소	일정	전화번호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여름캠프 역사기행 자연과학 실험교실	부산 범어사 계곡 공주부여 유적지 개금사회복지관	7/27~7/29 8/1~8/3 8/7~8/14	051)893-5034
구룡사	구룡썸머베이스캠프	일앙 표충사	8/5~8/8	02)575-7766
길음종합복지관	"가능성"청소년 여름교실	속리산 국립공원내 보람원	8/3~8/5	02)985-0161
목동청소년회관	바다캠프	강원도 포산해수욕장	8/2~8/5	02)646-0181
영등종합사회복지관	푸른 환경캠프	경기도 행새울 관광농원	7/24~7/25	02)762-8131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아동여름캠프	장흥국제캠프장	7/26~7/27	02)817-8052
불교레크레이션포교회	연꽃어린이캠프	포천 베어스타운리조트	7/24~7/26	02)935-4967
법동종합사회복지관	국토순례 하계캠프	지리산, 남원	7/24~7/26	042)633-1141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아동캠프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	7/24~7/25	02)421-6077
삼척종합사회복지관	가족생활 체육캠프	삼척시 가족자연 휴양림	7/23~7/25	0397) 73-6168
송광종합사회복지관	극기훈련캠프	사계절 페밀리타운	7/27~7/28	0661) 54-4051
우리는 선우	청소년 물교문화캠프	경주일원	8/4~8/7	02)278-8672
중리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푸른꿈 가족캠프	하동군 위태국민 학교	7/25~7/27	0551) 52-8017
진주불교회관	여름캠프	호국사, 외곡사, 청곡사	7/28~7/30	0591)747-0108

불교 레크레이션 지도자

불법 전하는 오락 포교사

여름방학을 앞두고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캠프'가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캠프'를 이끄는 불교전문레크레이션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불교레크레이션지도자들은 어린들에게 '나'를 개발하고 '너'를 받아들이는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고, 불성계발을 책임지는 청소년 포교사로 불교계의 중요 인력자산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불교레크레이션지도자들을 양성해 내고 있는 곳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철오), 불교교육원(원장 황학현), 불교레크레이션포교회(회장 법현)등. 이들 단체들은 레크레이션포교도 실천하면서 정기교육을 통해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함해에 재교육과 신교육을 마치는 레크레이션지도자들은 약 1천여명. 그러나 재교육자를 제외하면 2백50여명 정도로 늘어나는 여름캠프·수련회등 이들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의 확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불교레크레이션지도자 양성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은 "불교레크레이션지도자들은 단순한 교육자로서가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키워주고, 신앙심을 고취시키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때문에 불교레크레이션지도자들은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프로그램 진행 요령을 필요로 한다. 이와관련 교계 교육기관에서는 교리에 바탕을 둔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모으고 있다.

불교교육원의 황학현씨는 "불교레크레이션지도자들에게는 제일 먼저 신앙적 토대에서 완성된 전인적 인격이 요구된다"며 "아는 지(知)와 행의 일치를 통한 거짓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레크레이션포교가 교계에 활용된 것은 90년도 이후. 불교소재 레크레이션만도 5백여가지로 캠프에 참여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은 '돼지임금 게임' '화엄놀이'등 불교소재 레크레이션을 학교등 일상생활에서도 친구들과 즐겨 활용하고 있다. 이렇듯, 지도자들의 교육과 프로그램의 개발은 상당한 내용상의 발전을 보이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평이다.

불교레크레이션포교 일선에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는 법현스님은 "불교교육을 통한 심성개발프로그램은 물론 물놀이, 장애물 극복훈련, 야간담력훈련, 캠프파이어등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쉬우면서도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종 캠프 및 수련회와 특별법회등의 양적인 확대 못지 않게 불교전문레크레이션지도자들의 자질 및 진행상의 지속적인 질적성장은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좌시할 수 없는 교계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 교계 교육기관에서 양성된 불교레크레이션 지도자들은 올 여름 캠프진행을 위해 분주하게 보내고 있다.

각종 캠프·법회·수련회서 진가 발휘

한해 2백50여명 새로 배출 '태부족'

도필선 기자

◇ 기사넘쳐 이근후 건강칼럼 쉽니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 악(惡)의장 *

선한 일을
쌓는 것은
즐거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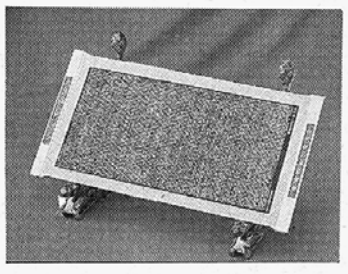


이 향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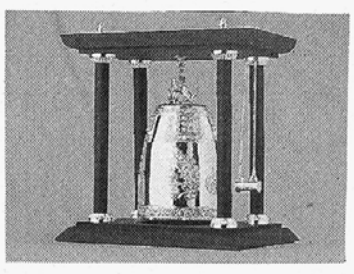


불기 2539년 불교미술 공예품 특별기획전 행사특가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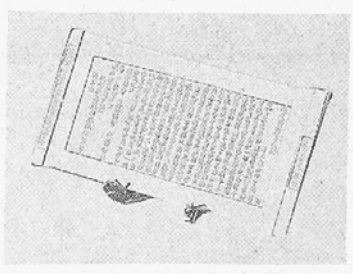
구입문의 기획제작 三田佛事 (02) 732-6095 732-6096
• 클로버서비스전화 080-023-1101(요금수신자부담)



선착순 48점
• 비경 전불금강경 경판
부처님 천 분을 양각하여 모시고 가운데 금강경을 입체사경한 비경
• 종전가: ₩ 399,000
• 행사특가: ₩ 380,000
■ 재질 주석 99%(순금개금)
■ 규격 505×255×8(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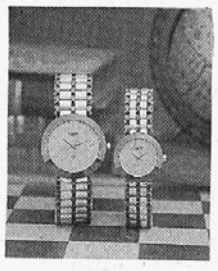


선착순 118점
• 황금 에밀레종
■ 국보 제29호
■ 재질 : 순청동, 순금개금
■ 규격 235×185×270(m/m)
• 종전가: ₩ 148,000
• 행사특가: ₩ 98,000



선착순 108점
• 금동반야심경
■ 국보 제32호(고려팔만대장경)
■ 재질 : 순동 24K 개금
■ 규격 가로 260× 세로 99(m/m)
• 종전가: ₩ 128,000
• 행사특가: ₩ 68,000

품질 / 디자인 / 품위는 60만원대 예물시계 가격은 10만원대
천연보석 지로코늄 예물시계 – 콤비



PHOENIX
(주)피닉스 시계
18K금용두
• 원석사파이어그라스
• IPG순금이온도금
• 3기압완전방수
• 안조콤비패션밴드
• 시중가: ₩ 339,000
• 행사특가: ₩ 128,000

운명의 길을 열어주는
부적 천지인의 만나는 인연
보살기(氣)띠부적 메달

띠부적이란?
인간은 누구나 12간지에 따라 12년을 하나의 주기로 운명의 변모를 합니다.
12년마다 되돌아오는 자신의 운명지수의 변동을 인연보살 천지인의 氣로써 천운의 길로 돌려 놓는 불가사의한 부적입니다.
각 띠별로 자신의 궤도를 미리 알아 매사를 성사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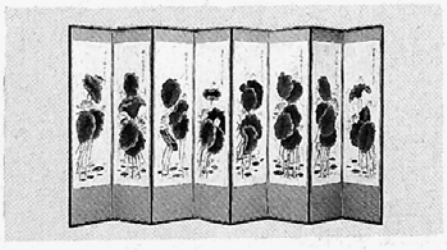
■ 띠부적메달견본
• 앞면 (보살상)
• 뒷면 (띠별12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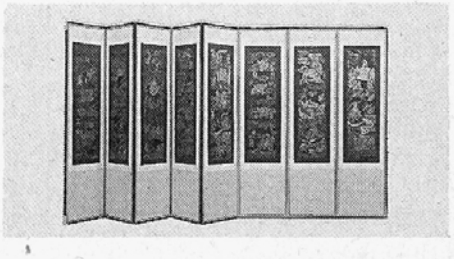


■ 순은 (99.9%) 18.75g ■ 가격 ₩ 48,000(세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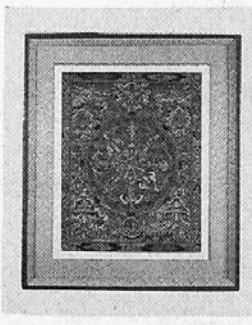
(子)쥐띠(만월보살) 甲子生, 丙子生, 戊子生, 庚子生, 壬子生	(午)말띠(여의륜보살) 庚午生, 壬午生, 甲午生, 丙午生, 戊午生
(丑)소띠(천수보살) 乙丑生, 丁丑生, 己丑生, 辛丑生, 癸丑生	(未)양띠(대세지보살) 辛未生, 癸未生, 乙未生, 丁未生, 己未生
(寅)범띠(대륜보살) 丙寅生, 戊寅生, 庚寅生, 壬寅生, 甲寅生	(申)원숭이띠(십일면보살) 壬申生, 甲申生, 丙申生, 戊申生, 庚申生
(卯)토끼띠(수월보살) 丁卯生, 己卯生, 辛卯生, 癸卯生, 乙卯生	(酉)닭띠(군다리보살) 癸酉生, 乙酉生, 丁酉生, 己酉生, 辛酉生
(辰)용띠(관세음보살) 戊辰生, 庚辰生, 壬辰生, 甲辰生, 丙辰生	(戌)개띠(정취보살) 甲戌生, 丙戌生, 戊戌生, 庚戌生, 壬戌生
(巳)뱀띠(관자재보살) 己巳生, 辛巳生, 癸巳生, 乙巳生, 丁巳生	(亥)돼지띠(아미타불) 乙亥生, 丁亥生, 己亥生, 辛亥生, 癸亥生



선착순 18점
• 林泉 거사 불성 연화도 병풍
진품
■ 후면 : 반야심경(금정산인정관)
■ 높이 : 5자 5치(약 167cm)
■ 폭 : 12자(약 364cm)
■ 재질 : 고급스기목, 스모사 비단
• 종전가: ₩ 529,000
• 행사특가: ₩ 38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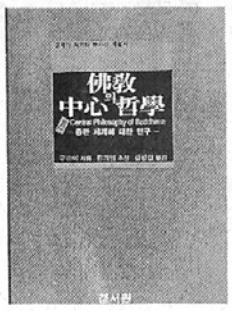


선착순 20점
• 석가세존 부처님 일대기 병풍
장엄하신 세존부처님의 일대기를 금화로 조성한 살아있는 병풍입니다.
• 8폭 •
■ 높이 : 5자 5치(약 167cm)
■ 폭 : 12자(약 364cm)
• 종전가: ₩ 428,000
• 행사특가: ₩ 298,000



진품
만다라
티베트 스님께서 지성과 공덕으로 탄생시킨 불가사의한 영성의 법력도
선착순 32점
■ 규격 : 580×480(m/m)
■ 재질 : 스기목, 입체표구(완제품)
• 종전가: ₩ 500,000
• 행사특가: ₩ 420,000

불교의 중심철학 | 무르띠 지음



서구인 불교관 뒤바꾼 중관개론서

2천5백년의 역사를 통해 이룩된 온갖 불교사상은 모두 중관사상을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시불교와 아비달마불교를 수렴시켜 그 핵심을 갈파한 것이 바로 중관사상이며, 대승불교 사상들도 중관이라는 불교의 핵이 있었기에 그 다양한 전개가 가능했다.

〈불교의 중심철학〉은 중관불교의 개설서로, '무익한 허무주의적인 종교'라는 서구인의 불교관을 뒤바꿔놓은 중요한 저작이다. 즉 이 책으로 인해 '중관사상은 서양의 그 어떤 종교나 사상체계보다 완벽한 변증법적이고 절대론적인 체계'라는 인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모두 3부로 구성된 이 책의 1부에서는 중관철학의 기원과 발달을, 중심이 되는 2부에서는 중관변증법의 구조를 비롯 철학체계로서의 중관철학을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3부에서는 중관학과 서양철학의 변증법 체계와의 비교를 시도했다. 김성철 옮김. 〈경서원, 1만9천원〉

화 제 의 책

답사 여행의 길잡이 '충남' | 목수현 외 지음



9개 코스로 나눠 유적등 안내

답사여행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고 있다. 여행이 감성의 과소비가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

'답사여행의 길잡이' 시리즈에서는 전국을 행정구역과 문화권에 따라 구분해 충실한 답사정보와 자상한 여행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충남〉은 전북 경주 관동에 이은 이 시리즈의 네번째 권.

〈충남〉편은 전체를 9개 코스로 나누어 그 지역의 문화유적에 대한 소개와 답사정보를 전하고 있다. 각 코스는 하루 정도의 시간 또는 1박, 2박의 일정으로 돌아볼 수 있다.

책머리에는 '충남지역 답사여행의 길잡이'를 실어 전체적인 주제와 특색을 파악하도록 했으며, 말미에는 특집으로 '일본문화의 원류로서 백제문화'를 붙여 백제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본문 옆에는 교통·숙식 등 여행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실었다. 〈돌베개, 1만2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역자	출 판 사
1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 경 각
2	히말라야·인도에 빠진 닥터	임 현 담	효형출판사
3	하산	홍 주	불 지 사
4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5	삶에서 깨어나기	틱 낙 한	장 경 각
6	영가천혼법어	석 성 우	토 방
7	청소년 불교수련의 길잡이	편 집 부	정 토
8	알기쉬운 불교	편 성 부	불교방송
9	부처님 말씀	성 열	법 등
10	42장경	라즈니쉬	성 하

구입문의:(02)737-0695

책으로 보는 탱화·조각의 세계

'감로탱' '한국불교조각의 흐름' 동시 출간

한국 특유의 불화인 감로탱(甘露幀)을 모아 해설한 〈감로탱〉(예경)과 전국에 산재한 불교조각을 역사적으로 체계화한 〈한국불교조각의 흐름〉(대원사)이 동시에 출간된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강우방씨와 학예연구사 김승희씨가 공동집필한 〈감로탱〉은 '잊혀진 불화의 장르 복원'이란 의미를 지닌다. 국내는 물론 일본 및 프랑스 기메박물관에 소장된 50여점의 감로탱을 318컷의 컬러도판에 담아 감로탱의 발생배경, 미술사적 특징, 감로탱에 나타난 정신세계등을 입체적으로 조망했다.

16세기말~20세기초까지 번성했던 감로탱은 사자(死者)의 극락왕생을 비는 수륙재나 사십구재 때 쓰이는 의례용 불화로, 모든 중생의 영혼을 제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의 구조는 대체로 불보살이 있는 천상의 세계를 나타내는 상단과 현실세계 및 지옥을 그린 중·하단으로 나뉜다.

저자 강우방씨는 "하단, 즉 욕계부분에는 인간이 겪어야 하는 세상의 온갖 고난과 즐거움의 순간들이 예술적 형상을 빌어 유형화되어 있다"며 "효도와 조상숭배사상에서 우러난 우리민족 정서에 바탕을 둔 한국불교예술의 상징"이라고 감로탱을 설명했다.

〈감로탱〉은 1천부 한정발행되며, 이 가운데 2백부는 영국의 동양학서적 공급회사를 통해 세계각국의 주요 도서관에 보급된다.

〈한국불교조각의 흐름〉은 불교예술이 극에 달했던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기의 불교조각을 양식의 변천과정에 초점을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기쉬운 동양 불교조각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책의 저자도 강우방씨이다.

제1부 종교미술론에서는 자신이 불교와 불교미술을 보는 관점과 방법을 불상미학과 불신관(佛身觀)을 통해 밝힌다. 제2부는 고구려 백제 신라 및 통일신라의 불교조각들을 예시하면서 미술사적 의미를 규명한다. 특히 불상들의 조형원리와 신앙적 배경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박물관에서 전시된 죽은 불상'들을 생명이 충만한 예술품으로 살려낸다.



정성운 기자

불서와 함께 한 어느 여름



윤 원 철

'열반종요' 읽으며 화쟁의 논리에 푹빠져

한글번역·주석달며 참으로 행복했다

올 여름은 얼마나 더우려나, 여름을 날 장비와 마음의 준비를 얼마만큼이나 해두어야 할까, 철쭉이 한창 어우러지던 때부터 일찌감치 걱정을 해댔었다. 모두들 생생히 기억하듯이, 작년 여름의 더위가 참 혹독했었기 때문이다. 닥치면 다 그럭저럭 견디게 마련이건만, 공연한 걱정이다.

어떤 교수님 말씀이 放學이라 해도 매번 '放'은 못하고 여전히 '學'에만 매달리게 된다고 하시는데, 그 말투에 불평보다는 보람의 느낌이 배어 있다. 書生(유학도뿐 아니라 넓은 의미의)들은 대개 모두들 동감하리라고 생각된다. 스님네들은 安居에 들어 俗事를 놓아버림(放)으로써 여름의 공부(學)를 삼는데, 서생들은 밀린 공부를 다시 잡아 放으로 삼으니 묘한 대칭을 보인다.

올 여름은 교수로 부임해서 맞는 첫 여름방학인데, 계절수업 강의까지 맡아서 '放'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물 건너간 얘기였다. 이럴 때 아예 본격적으로 '學'으로서 '放'을 삼는 게 여름을 제대로 나는 첩경이다.

올 여름의 공부는 대학원생들의 요청에 따라 元曉大師의 「涅槃宗要」를 宗要로 삼는 것으로 낙착되었다. 귀국한지 일년이 다 되도록 아직 채 다 풀지 못했던 책 보따리를 뒤져 전에 〈열반종요〉를 공부했던 기록을 주섬주섬 끌어내면서, 미국에서 유학할 때 박성배 교수와 이것을 읽으며 보낸 그 여름의 추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오월 중순부터 팔월까지 세 달 반 동안의 그 긴 여름방학이 참으로 행복하게, 그러므로 또 참으로 짧게 지나갔었다. 박 교수의 미국인 제자 동료 학생 한 사람의 느낌이 배어 있다. 書生들 못머뭇하더니 강독이 진행되어 가자 아주 푹 빠져서 신이 나 했었다.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신나게 했을까? 〈열반종요〉는 수상록도 아니고 설화집도 아니며 제목 그대로 열반경의 종지를 해설하는 '학술적'인 내용이어서 그다지 신이 날 거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 그 유명한 원효대사의 화쟁의 논리가 구체적인 論題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구사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가며 즐거워했다.

열반경의 宗旨를 흔히 여래의 佛身은 常住한다는 적극적인 涅槃觀과 모든 중생의 佛性을 갖고 있다는 佛性普遍說에서 찾는다. 열반은 끊고 가라앉히고 여의고 없애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늘(常) 변함없이(不變易) 밝은 빛으로 널리 비추는(光明遍照) 적극적인 경지라는 것이니, 달리 말하자면 고요함(寂)과 적극적인 비춤(照)이 함께 있는 것이다. 또한 중생이 다 불성을 갖고 있으니 심지어는 一闡提까지도 성불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종지는 모두 中道 不二의 세계에서 말하는 것으로, 중생에게는 그야말로 수수께끼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열반과 불성의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구한 설이 나오게 마련이다. 원효대사는 주요 개념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 가지 기존의 설을 소개하고는, 중도 불이의 一心의 자리에 선 혜안으로 그것들을 일일이 論破하고 아울러 包攝하여 一味로 수렴시키는 호호탕탕한 화쟁의 논리를 전개한다.

중도 불이의 세계는 말로 할 수 없건마는 말로 따져야만 하는 자리에서 원효대사는 "말로써 말을 여의는"(因言遣言) 그런 말을 뿌려 댔건마는, 천상 書生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그냥 읽지만 말고 뭔가를 남기자는 취지에서 〈열반종요〉의 한글 번역과 주석을 내가 담당하고 그 친구는 영어로 번역하고 주석하는 일을 맡았었다. 그게 커다란 한 보따리 짐으로 남았다. 하지만 그 원고를 출판하는 것은 박 교수님과 그 친구, 또 내가 한꺼번에 시간을 내서 마무리 다듬이질을 한 뒤에야 이루어질 일이다.

아무튼 이젠 그 보따리를 나의 학생들에게 전해 줄 차례이다. 禪師들은 마음과 마음으로 제자에게 등불을 전해 주고, 서생들은 그 동안 공부해 온 것을 공책 보따리로 제자에게 전해주는 여름이다.

〈서울대 교수·종교학과〉

명사추천 불서 100선

이광수 소설 '원효대사'

불심 가꾸는 법 깨우쳐 주고

읽을수록 올바른 삶의 기틀 세워



정 공 채
(시 인)

춘원 이광수의 빼어난 소설들을 거의 다 읽었다 할 수 있는 내게, 불교를 소재로 한 인물소설로서 감명을 아직껏 깊게 아로새겨 두고 있는 책은 〈꿈〉과 〈이차돈의 사(死)〉 그리고 〈원효대사〉와 같은 작품이다.

이 소설들은 중고등학생 시절에 독파한,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이긴 하지만 지금도 〈이광수전집〉으로 묶여져 출판되고 있어 쉽게 다시금 읽을 수 있는 명작 불교소설로서 귀중한 고전이 돼 있기도 해서 좋다.

앞에 밝힌 춘원의 소설들은 소설로서의 재미와 함께 유려하면서도 깊은 내용과 문장으로 마음을 사로잡아 모두 두세번씩은 족히 읽은 책으로 기억되고 있다. 내 개인의 바램으로는 거듭 또 고요히 읽고싶기도 한데, 그런 시간이 갖추어 질지 모르겠다.

"하나인 마음 이외에 다시 다른 실재(實在)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람들이 어리석어 그 하나인 마음을 잘 모르고 방황하는 까닭에 그 고요해야 할 바다에 파랑(波浪)이 일고 기복(起伏)이 생기며, 온갖 평화롭지 못한 생(生)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소설 〈원효대사〉에 내포돼 있는 원효대사의 가장 인간적인 마음의 평화로운 사상—불심은 이렇듯 진리를 깨우쳐 주고 있는데, 대사(大師)로 추앙받고 있는 법명(法名)이 원효(元曉)인 그는 신라시대 10성인(聖人)의 한분으로 우리나라 불교인 해동종(海東宗)의 시조이기도 하다.

본성은 설(薛)씨요, 신라 신문왕(神文王) 때의 대학자로서 이두문(吏讀文)을 창시시킨 설총(薛聰)의 아버지이기도 한 원효대사(617~686)의 참으로 인간적이면서 고결한 대승사상은 사람이 마음으로 옳게 사는 것이 바로 부처라 하였다. 곧 올바르게 산 사람이 부처요, 올바르게 사는 법이 바로 법이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가 스님이다. 그래서 소설 〈원효대사〉를 읽으면 올바른 삶의 기틀은 언제나 바른 마음가짐에 있고, 마음과 생명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돼 있어 온전한 목숨은 온전한 마음이라고 깨우치게 해주고 있다. 이 사상은 사랑에 빠지기도 했던 원효의 깊은 번뇌와 체험에서 진실로 인간적으로 체득(體得)된 부처님의 마음인 바, 그의 생애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전후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의 고뇌를 자신의 고뇌로 삼아 번민한 일생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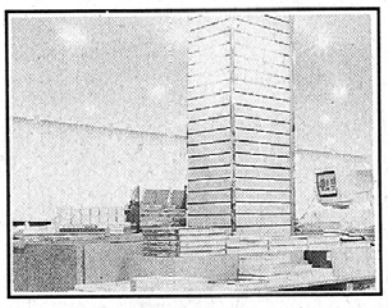
그는 두번씩이나 당(唐)나라 유학을 꿈꿨다가 이것이 아무런 쓸모도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진리를 깨우쳐 "하나인 마음 밖에 다른 실재(實在)는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대승(大乘)이란 무엇이냐. 이것은 깊고도 고요하고 맑고도 평화로운 것이다. 깊고도 다시 깊어 어찌 그 모양을 말할 수 있으랴! 고요하고도 고요한 그것은 마음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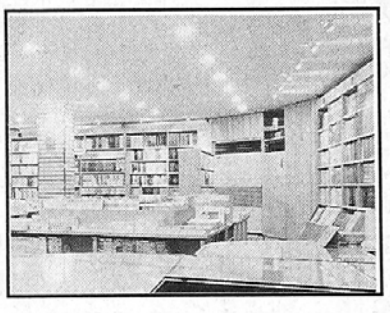
원효대사의 생애와 사상을 절정(絶頂)으로 그려낸 춘원 이광수(春園 李光洙)의 소설 〈원효대사〉는 오늘이라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새삼 새롭게 읽어, 사람마음의 참된 불빛을 불심으로 가꾸는데 꼭 필요한 아름다운 책이라고 믿는다.

불을가득·법향가득

책 방 여 시 아 문 으로 오십시오



· 저자와의 만남(격월)
· 계절별(분기별) 책잔치 개최
· 통신판매—전화, 팩스 주문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편리한 도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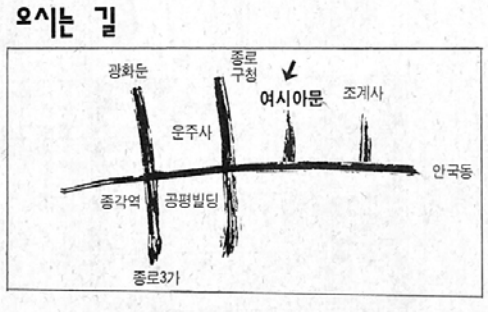


·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5천 여종, 3만 여권)
· 불교관련서적(역사, 철학, 사회과학 등 망라)
·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 열람 가능
· 편리한 도서안내
· 편안한 독서 공간
· 도서상품권 취급



· 도서회원제 운영 (1995. 4. 1.부터 시행)
회원특전
· 현대불교신문사, 도서출판 여시아문 발행도서에 대한 회원 우대 사은권 제공
· 소식지를 통한 도서 정보 제공
· 통신 주문
· 전화 도서 목록 검색 서비스 (737-0695)
· 책방 여시아문·현대불교신문사 주최 행사 우선 초대

오시는 길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대표) 737-8881 (서점직통)737-0695 / 팩스 737-0696 / 교통편 전철 :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 32, 59,84,159,331,588-2번

'자화상' 통해 화가내면 엿보기

서울미술관,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화가 70명의 자화상 1백점 전시

내가 부른 노래
내가 부르지 못한 노래들이
우르르
불 켜들고 달려오는
나일줄이야

이 찬란한 후회가 나일줄이야

시인 고은씨는 '자화상'이란 시를 통해 이렇게 자화상의 의미를 찾고 있다. 자화상을 인간이 절대자나 어떤 대상들로부터 떠나서 자아를 발견하는 긴 역정 가운데서 얻어지는 내적인 형상이라고 정의하는 고은씨의 이 시는 오늘날의 자아상실 시대가 갖는 비참함을 역설하고 있다.

자아상실의 시대에 한국인의 자아와 한국회화의 자아를 찾고자 마련된 「한국, 100개의 자화상」전이 지난달 24일 문을 열어 9월10일까지 구기동 서울미술관에서 계속 된다.

조선시대에서 현재까지의 화가 70명이 그린 자화상과 자소상(自塑像) 1백점이 전시되고 있다. 시대, 양식, 기법을 넘어서 자화상이라는 독특한 주제에 대한 화가들의 다양한 심정을 볼 수 있는 이 전시회는 한국미술사의 한 흐름을 대변하는 기회로도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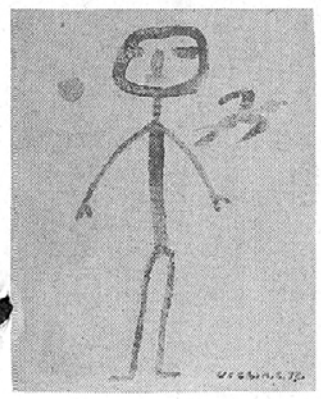
스스로의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과 추상화 시킨 작품 심지어 자신의 얼굴을 그리지 않은 자화상까지 전시되고 있어 자화상이 갖는 내면적 탐구의 영역도 넘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화가로는 윤두서, 강세황, 김홍도, 이인문 등의 자화상과 작품이 선보이고 있으며 현대작가중에서 불교적 소재를 다루어 온 불자화가로 잘 알려진 고희동, 장욱진 이단익, 송영방, 오경환씨 등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이 전시는 9월18일부터 10월8일까지 국립청주박물관에서도 열릴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고희동의 자화상, 연도미상


◇장욱진의 자화상, 1973년


◇송영방의 자화상, 1995년


◇이만익의 자화상, 1960년


◇오경환의 자화상, 1994년

감은사지 3층석탑 보수공사

경주 서악리·월성 나원리 석탑도

경북 월성군 감은사지3층석탑(국보 112호)등 경주지역 국보및 보물석탑 3기가 해체·복원된다.

문화재관리국과 경주시는 지난달말 경주 서악리3층석탑(보물 65호)의 해체공사를 완료하고 보수공사를 거쳐 이달말경 복원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월성 나원리5층석탑(국보 39호)과 감은사지3층석탑도 이달말까지 예산심의를 거쳐 8월초부터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해체된 서악리 석탑은 지대석이 빠져있고 기단부와 탑신 받침이 파손돼 있어 재래방식으로 해체작업을 실시했다. 감은사지3층석탑과 나원리5층석탑도 오랜 풍화작용과 하중부하로 기단부와 면석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여서 보수가 시급한 상태다.


◇보수되는 감은사지3층석탑(2기).

故김복진 사업회 구성

내달 18일 작품전 열어

철거되기전의 법주사 미륵대불을 조성했던 김복진(1901~41)선생의 업적 정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관 김복진기념사업회'가 구성됐다.

서거 55주년을 맞아 구성된 기념사업회는 고인의 기일인 8월18일을 전후해 묘비건립, 문집간행, 학술행사, 김복진미술상 제정, '사진으로 본 김복진 조각작품전' '기념조각전'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32만여명 서명참여

JC, 문화재 환수운동

한국JC(청년회의소)가 지난 4월15일부터 광복 50주년을 맞아 벌여온 해외유출 문화재 환수운동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2백38개 지구에서 3달간 진행된 서명모금운동 결과 서명에 참가한 인원은 32만1천6백88명, 모금액은 2천1백46만7천여원으로 나타났다.

극단 '종' 해체

단장 일봉스님 입적으로

불교포교극단 '종(鐘)'이 사실상 해체됐다.

극단 종의 해체는 지난달 22일 단장 일봉스님의 입적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20여명의 단원들도 모두 극단을 떠났다. 극단 종은 91년에 창단돼 첫공연 '서천꽃밭'을 무대에 올린 이후 '사모곡'등으로 수차례 지방과 서울공연을 가졌었다.

한편 지난달 입적한 일봉스님은 67년에 출가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초기극단이었던 「대중극회」「국립극단」 등에서 수년간 단원생활을 했었다.

김미숙씨 전통춤사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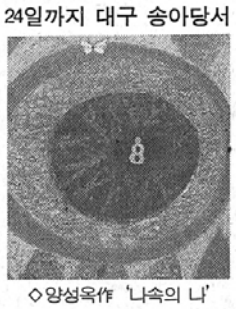
'승무' '불교의식무' 공연

한국춤꾼 김미숙씨(부산여전 무용과 학과장)의 '제5회 김미숙의 춤' 공연이 지난 10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지난 84~90년 네 차례의 개인공연 이후 5년만에 가진 이번 공연에서는 그간 창작무용에 치중해 왔던 경향과 달리 김교수가 재구성 안무한 〈승무〉〈태평무〉〈불교 의식무〉 등 전통춤의 묘미를 선사했다.

양성옥씨 개인전

24일까지 대구 송아당서


◇양성옥作 '나속의 나'

양성옥씨의 개인전이 15일부터 24일까지의 일정으로 대구 송아당화랑(425-6700)에서 열린다.

「갇힌자유」「자아를 찾아서」등의 작품들과 「나속의 나」 연작시리즈가 주목되고 있으며 작가적 상상력과 추억의 공간에 날아든 나비의 상징성 등이 작가의 내면세계를 잘 보여준다.

불교 뉴스·신행프로 '세계로'

btn BBS, 미국·유럽등 보급 긍정 검토

불교방송과 불교텔레비전의 뉴스와 신행프로그램들이 미국 유럽등 전세계에 보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불교방송은 지난달 26일 종무회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교방송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미주 한인방송에서 뉴스제공 의사와 캐나다, 유럽등에서도 고승열전 선시낭송 등의 7~8개의 프로그램 공급의향을 타진해 왔다고 밝히고 앞으로 방송국 차원의 세부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불교텔레비전도 지난 10일 새열미디어 측에서 프로그램을 미국에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타진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불교텔레비전측은 '제작프로그램의 해외공급은 장기간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안을 정해 시일을 두고 검토키로 했다.

한편 불교방송과 불교텔레비전의 불교관계 프로그램 공급주문이 쇄도하는 현실에서 방송가에서는 '외국공급업체에 대한 재정구조를 엄격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이라는 원칙이 제기되고 있다.


◇불교TV의 신설프로 '구화산 지장법사'가 22일부터 방송된다. 사진은 구화산 육신보전.

불교TV '새프로 새단장'

지장법사·연작시리즈등 신설

불교텔레비전은 일부프로의 종료와 관련하여 새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삼장법사 후편으로는 오는 22일부터 구화산 지장법사가 방송된다.

또 실크로드 후편으로 오는 26일부터 방송될 프로는 4부작 부처님의 사원 양코르와트와톰, 신들의 땅 네팔, 알렉산드라 데이빗 닐, 2부작 갠지스강 천연 곤륜산맥, 소림사스님 구게, 3부작 승무 탄트라의 세계, 행복과 평화의 조건, 선의 세계 2부작 활불, 툴스크스 5부작 예술 과학 그리고 불교의 만남이 방송된다.

춘천佛放 추진위 8월 발족

춘천·강원지역 불교방송 추진위가 8월중에 창립될 예정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춘천사암연합회(회장 편백운 석왕사 주지)가 지난 6일 강원지역 불교계의 숙원인 불교방송 개국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움으로써 가시화 됐다.

편백운스님은 "그동안의 지역 불교방송 개국과 관련하여 지역불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개국허가를 받은데 큰 힘이 됐다"며 "추진위를 발족하여 모금운동 등 지역적인 공감대를 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춘천사암연합회는 오는 22일 춘천불교신도회를 창립키위한 예비모임을 춘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갖고 8월중에 춘천불교신도회 창립과 추진위를 발족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춘천 각계 불자 동참 22일 예비모임

지역의 추진위 구성은 정·관계,예술·문화·언론인등 불자들을 총 망라하여 구성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춘천·강원지역은 지난 5월 대구 청주불교방송의 허가와 관련 춘천에도 불교방송을 설립돼야 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btn 불자주식 공모

15억3천여만원 증자

불교텔레비전의 불자주식공모금이 주금납입일인 지난 10일까지 전국에서 2천8백45명의 불자가 참가, 최종마감액 15억 2천5백 3십8만 5천원을 관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증자신청 했다.

이번 주식공모에서는 서울(5억3천)부산(4억7천) 경기(1억3천)지역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종단별로는 조계종(7억4천) 진각종(1억) 태고종(2천2백)의 참여도 두드러졌다.

'btn 특강' 공개방송

고건, 조정래씨등 출연

불교텔레비전은 사회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종교의 역할과 중요성을 현실에 맞게 재조명하는 'btn특강'(목 12:30~13:20)공개방송을 매주 일요일 오후 12:30분 양제동 구룡사 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8월 한달간 출연 예정인사로는 고건 명지대총장,조정래, 최인호, 차범석, 김홍경씨 등이다.

"32만9천 가구서 케이블TV 시청한다"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는 지난 1일 케이블TV 현황을 통해 현재가입세대는 총 33만8천여 가구라고 밝혔다. 이중 시청가구는 32만9천여 가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내용중 '불심시심' 쉽니다.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 **지원자격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5년 8월 31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 과 목 :** 주 5일 수업

1학년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선학입문	정토사상
2학년	2학기	의식실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교사 및 종교학	완전강독 I

■ **특 전 :** 졸업후: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

소쩍새마을 승가대 부설 추진

복지법인화 작업·원주사암연 향후대책 모색

"MBC보도 진위조사후 7만 후원자들에게 해명"

최근 모 방송국의 보도로 물의를 빚고 있는 소쩍새마을이 중앙승가대 부설 복지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중앙승가대와 소쩍새마을 관계자들은 지난 11일 (가칭)소쩍새마을 인수 및 복지법인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중앙승가대는 또한 소쩍새마을 인수에 따른 변호인단과 법인추진위원회를 별도구성, 본격적인 인수절차를 밟는 한편 방송국의 보도내용 진실여부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쩍새마을 법신스님은 "방송국의 과장보도로 불교계와 소쩍새마을이 타격을 입게 되어 안타깝다"며 "소쩍새마을이 겪고 있는 오명을 씻고 소쩍새마을 가족의 앞날을 위해 공신력있는 중앙승가대에 모든 권리를 이양한다"고 밝혔다.

방송국에 일력스님의 비리를 제보한후 소쩍새마을 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던 자원봉사자들도 지난 11일 승가대 관계자와 회합을 갖고 "중앙승가대의 소쩍새마을 인수를 환영한다"며 인수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합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원주사암연합회는 지난 8일 모임을 갖고 소쩍새마을 대책위원회(회장 삼지스님, 구룡사주지)를 구성했다.

소쩍새마을 대책위는 이날 "KBS·SBS를 비롯 중앙언론에서 수차례 소쩍새마을의 자비삶을 보도했는데 갑자기 개인적인 비리를 통해 불교계와 사회복지계에 실망을 안겨준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정확한 진실을 파악해 7만명의 후원자들에게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쩍새마을은 1백37명의 정박아, 지체부자유자가 공동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MBC-TV가 '소쩍새마을의 진실'이란 프로를 통해 원장 일력스님의 비리를 폭로했다.

현재 소쩍새마을은 충주 동량면에 '진여원'을 건립하고 있어 앞으로 교계최대의 복지시설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진여원은 소쩍새마을 가족들이 살아갈 공간으로 2만여평의 대지에 극락전등의 법당과 기도실을 갖추게 된다. 총공사비 1백50억원 가운데 44억원이 투자된 진여원은 현재 토목공사를 마치고 옹벽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98년 완공예정이다.

〈원주=이준엽·김중근 기자〉



◇ 중앙승가대·소쩍새마을·자원봉사자들은 지난 11일 회합을 갖고 소쩍새마을을 중앙승가대 부설 복지법인으로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 불교계 최대의 복지시설이 될 진여원. 현재 토목공사를 마치고 옹벽공사가 한창이다.

방송이후 소쩍새마을 분위기

후원회원·봉사자 변함없는 자비손길
정박아 등 1백30여명 서로 의지·위로

MBC-TV의 '소쩍새 마을의 진실'이란 프로가 전국적으로 방송된 이후 소쩍새 마을은 어떻게 됐을까.

불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던 원주군 금대분교터에 자리잡은 소쩍새 마을은 시간이 흐르면서 평온을 되찾고 있다.

방송 보도후 진상을 확인하려고 찾아오는 후원회원들과 소쩍새 가족들의 안부를 묻는 전화가 빗발쳤다.

처음에는 질책과 항의전화가 계속되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소쩍새 마을 가족들을 걱정하고 위로하는 후원자들이 늘고 있다.

아빠스님으로 불리던 일력스님은 언론보도 이후 자취를 감추고 후원자들의 발길은 끊어졌다. 다만 소쩍새 마을 가족들에게 조건없는 자비행을 베풀었던 후원회원·자원봉사자들의 사랑만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원주시 사암연합회는 대책위를 구성했으며 지역 신행단체들도 진상규명과 후원활동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한사람의 부도덕적인 행동을 확대 보도해 오갈데 없는 소쩍새 마을 가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국의 모든 후원자들은 소쩍새 마을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주시를 비롯 인근 지역의 후원회원들은 매일 소쩍새 마을 가족들을 찾아 아이들을 일일히 돌보고 끼니를 거르지 않토록 공양준비를 하는 등 후원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소쩍새 마을에서 헌신적인 자원봉사를 펼쳤던 전국각지의 회원들은 언론보도이후 소쩍새 마을을 다시 찾아 장마에 대비하는 등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소쩍새 마을에서 3년간 자원봉사활동을 해온 중앙승가대 부회장 범종스님도 보도이후 곧바로 소쩍새 마을을 찾아와 "소쩍새 마을은 이웃의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라며 오갈데 없는 영혼들을 위해 후원이 계속되기를 기대했다.

이밖에도 중앙승가대학 복지학과 학인스님 20여명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비롯 봉사자들은 마을 구석구석을 청소하는등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쩍새마을은 사회로 부터 버림받아 갈곳이 없는 정박아와 지체부자유자, 고아, 미혼모, 무의탁노인 등 1백30여명이 함께모여 서로를 의지하고 위로하며 생활해 오고 있다.

지난 4일 MBC-TV가 방영한 '소쩍새마을의 진실'이란 보도는 불교계뿐 아니라 사회복지계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었다.

하루에도 2~3대의 대형버스가 찾고 주말이면 발디딜 틈도 없이 후원자들이 밀려오던 소쩍새마을에는 보도이후 일시에 모든 발길이 끊겨버려 방송매체의 위력을 실감케 하고 있다.

MBC측은 처음에는 8.15 광복특집으로 의지의 한국인을 찾는 프로제작을 위해 일력스님을 취재하려 했으나 제작과정에서 자원봉사자의 제보가 있었고 일력스님의 비리가 드러나 제작방향을 바꿨다고 한다. MBC의 보도로 일력스님은 자취를 감췄고 여러경로를 통해 소쩍새마을의 정상화방안이 모색되고있다.

그러나 정작 소쩍새마을의 진실이란 프로를 통해 일력스님의 비리를 고발했던 MBC의 사후대응은 소쩍새마을 관계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것은 방송이후에도 지방 방송국이 소쩍새마을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쩍새 가족이 다니는 학교까지 찾아온 방송사는 수업중인 여학생을 불러 낸다고 한다. 최근에는 소쩍새마을의 여학생들이 학교가기가 창피하다며 등교를 꺼려하고 있다. 이에대해 소쩍새마을 엄마스님인 법신스님이 MBC측에 강력항의하자 방송국의 모국장이 "방송사를 고발하거나 제보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지 말라"며 "소쩍새마을의 진실 2탄 3탄을 계속 방영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MBC의 처사에 대해 원주지역의 불자들은 일부 불순세력들의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본사에 접수된 '타종교계에서 소쩍새마을을 인수하려한다' '일부 세력들이 충주에 건립중인 진여원을 접수하려고 한다' 등의 제보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8일 원주지역 사암연합회는 소쩍새마을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확한 진실조사에 착수했다. 성불회, 청년회 등 지역 신행단체들도 일력스님 개인의 허물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비리를 침소봉대해 불교계가 매도당했다며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이러한 지역불교정서를 달래기 위해서 였는지 MBC는 지난주 일요일 낮방송에 예정과 달리 불교소재의 영화 '우담바라'를 방영했다.

소쩍새마을의 진실이 정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

목탁소리

소쩍새마을의 진실

이 준 엽
〈취재1부 차장대우〉

동국역경원 후원회 21일 출범

한글대장경 편찬·보급사업 전개계획

동국역경원 후원회가 21일 오전10시30분 삼성동 봉은사에서 발족법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동국역경원 개원 31주년을 맞아 결성되는 후원회는 한글대장경의 편찬과 보급을 위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며 최우선 사업으로 한글대장경 읽기와 모금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광우 무상 원산 일면 정휴스님과 목정배 서윤길 동국대 교수 등이 발기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후원회장으로 추대된 석주스님(칠보사 조실)은 "불자들의 숙원인 역경사업을 역경원에만 맡겨둬서는 안된다"며 후원사업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인터뷰 7면〉

동국역경원은 1964년 운허·청담스님과 김법린 당시 동국대총장이 중심이 되어 설립됐으며, 지금까지 번역목표량 250권중 174권을 펴냈다. 그러나 역경인력 및 예산의 부족, 낮은 번역료 등의 원인으로 97년 완역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개설

세수40·법납 15년이상 스님 대상

금년 1회에 한해 연령 40세 이상 법납 15년 이상의 스님을 대상으로 범어사(예정)에서 제16회 단일계단 수계산림이 끝난직후 3일간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이 개설된다.

한편 조계종 제16회 단일계단 수계산림이 오는 10월 26일(음 9월3일)부터 11월1일(음 9월9일)까지 범어사에서 봉행된다.

제1회 조계종 계단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2시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수계산림 일정을 이같이 정하고 △유나=종진스님 △교수사=종진 성우 무관 철우스님 △인례=무관 지운스님 △습의도감=도일스님 등 교수진을 각각 확정했다.

또한 올해 비구니계 수계자부터 미리 식차마나니계를 받아야 하며 식차마나니계단이 음력 8월 하순경 1박2일로 범어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단일계단 수계산림이 끝난 1주일후 비구계 수계자들은 1주일동안 김용사에서 종진스님을 강사로 〈사분비구계본〉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계단위원회는 비구니계율강의를 비구니스님들이 전담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한 비구니교우회의 공문이 율장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판단, 그 공문에 서명한 비구니스님들에게 엄중한 경고조치를 내려줄 것을 단주스님에 건의했다.

'스님 사장' 의견 모아

불방대책위, 이사장 잠정 대행체제로

조계종 불교방송대책특위(위원장 명진스님)는 지난 13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8명의 특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회의를 열고 종회결의사항인 직원징계 불이행 책임을 물어 강한필 사장을 사퇴시키기로 했다.

강한필 사장의 후임에는 이사장 종하스님이 직무대행을 맡아 3명의 직원을 징계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차기사장은 '스님으로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특위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또 이달 말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하고 모든 문제들을 정상화한 뒤 불교TV, 불교방송, 불교신문을 감사하여 3사의 통합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영가천도 선상대재 22~25일 현해탄서

삼풍백화점 참사를 비롯, 비명에 간 영가들의 극락왕생과 더 이상의 대형사고가 없기를 기원하는 '수·륙·공 선상대재'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현해탄 해상에서 열린다.

6백여명이 승선할 수 있는 카멜리아호 선상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덕암스님(태고종 전 종정), 비룡스님(월정사 조실)등 불교 국제원로승가회 회원과 우이짜난다 인도 대승정, 우케빈다 미얀마 대승정, 우지다 일본 동장사주지 등 70여명의 국내외 스님이 한자리에 모여 사상 최대 규모의 영가천도 법회를 봉행한다.

벽지어린이 서울 견학
경불련 자비의 집 초청

경불련 자비의집(운영위원장 김동흔)은 오는 25일부터 3박4일간 벽지학교 어린이와 소년소녀가장 초청 서울견학 행사를 갖는다.

벽지 어린이들의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지역 탄광촌 3개국교생 39명과 노원, 도봉, 강북구 소년소녀가장 6명이 초청됐다.

어린이들은 국립중앙박물관, 국회의사당, KBS방송국, 안보전시관 등 사회주요시설을 둘러보게되며 마지막 날에는 도선사에 들러 불교를 배우는 시간도 갖게 된다.

연화제 30주 추모법회
고려대 불교학생회

고려대학교 불교학생회(회장 이병호)의 연화제(蓮花祭) 제30주기 추모법회가 지난 7월8일부터 9일까지 재학생과 동문 45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대산 월정사에서 거행됐다.

태허대종사 열반추모
관음종, 21일 묘각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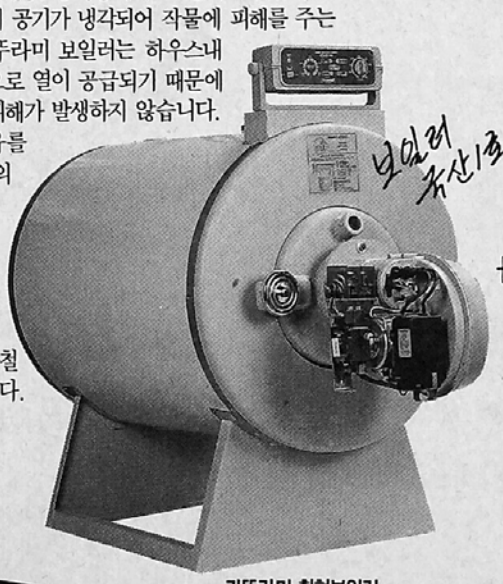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스님)은 오는 21일 오전11시 총본산 묘각사 대웅전에서 태허대종사 열반 17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홍파스님은 "관음종 창종주인 태허대종사의 유업을 받들어 전종도들이 종단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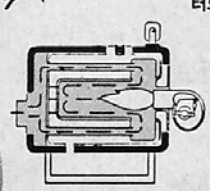
귀뚜라미 비닐하우스 양어장 용 보일러가 풍요한 결실을 약속합니다

국내 보일러 판매 1위 회사인 저희 귀뚜라미가 만든 횡형 보일러는 수박, 토마토, 특용작물 재배 및 양어장에서 그 진가가 빛납니다. 가동이 중단되면 급속하게 공기가 냉각되어 작물에 피해를 주는 기존 온풍기와는 달리 귀뚜라미 보일러는 하우스내 흙바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열이 공급되기 때문에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운기기름 등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귀뚜라미의 세계적인 신기술인 터보 소용돌이버너가 부착되어 연료비가 훨씬 적게듭니다. 또한 이상이 있을시 전국 161개 대리점망을 통한 신속한 A/S실시로 사시사철 안정적인 수확이 보장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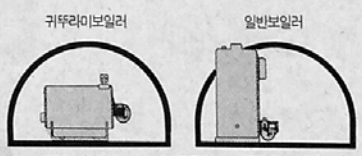




세계적인 연료절약형 터보소용돌이버너



강압통풍식 3PASS구조
별다른 송풍장치 없이도 노내의 높은 압력을 형성하는 구조의 연료절약형 횡형보일러입니다.



횡형 보일러는 비닐하우스 높이가 낮은곳에 설치가 편리한 보일러입니다.

귀뚜라미보일러 SINCE 1962
대표전화 : 02) 798-5126

귀뚜라미 횡형보일러
보일러 국산 1호기로서 최장의 수명을 자랑합니다. 횡형구조로 천정의 높이가 낮은 하우스 설치에 적합합니다.

귀뚜라미보일러는 부품수명이 다할때까지 무료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송광사 성보 꼭 찾아야 한다"

도난 6개월 수사 답보상태…불감증 우려

송광사 국사진영(보물 제1043호)은 과연 돌아올 것인가.

2백15년간 승보종찰 송광사를 지켜오던 국사진영의 도난사건이 발생 6개월을 넘도록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성보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순천 경찰서는 지난달 초 송광사 성보도난 수사본부를 전담반으로 전환하고 형사2계 수사관 6명을 전담배치 했으나 수사초기의 실적밖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전담반은 자체 수사이외에도 문체부(2천만원),총무원(5백만원)이 총 2천5백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자 제보를 통한 수사진전을 기대했으나 최근에는 제보도 중단된 상태다.

송광사 성보도난사건을 총지휘하고 있는 이광수 검사(순천지청)는 "전국의 전문적인 도굴 범죄자를 상대로 수사에 임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밝히고 "국사진영이 아직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훼손되지 않게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사전담반은 수사선상에 오른 용의자들을 좁혀가면서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빠르면 1~2달내에 수사전모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보를 잃어버린 송광사(주지 현고스님)는 도난사건이후에 '성보찾기 1백일 기도'를 봉행하고 다른 성보의 도난방지대책을 강구하는 등 서서히 성보도난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

송광사는 지난 2월부터 본말사 탱화 1백여점을 영인본으로 제작하고 박물관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 내부 시설공사를 남겨놓은 송광사 박물관은 정부예산이 지급되면 최종공사를 마무리하고 본 말사의 문화재급 성보를 전시할 예정이다.

송광사 총무 법경스님은 "대중 모두가 조상을 잃어버린 죄인의 심정으로 참회하고 있다"며 "최근 일부에서 성보도난을 내부소행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 대중의 분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도 사건 발생직후 포스터 3천부를 제작, 전국사찰에 배포하는 등 송광사 성보찾기에 열의를 보였으나 지속적인 사건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광사 성보도난 수사가 이처럼 답보상태에 머물자 불자들은 "교계에도 성보도난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며 "성보 문화재 찾기운동본부 발족 등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광사=이준엽 기자〉



◇송광사는 국사진영 도난이후 성보찾기 1백일기도를 봉행하는등 성보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사전은 성보를 잃은후 사진영정을 봉안, 참배객을 맞고 있다.

가야산 골프장 건설 '없었던 일로'

문체부 행정심판위 국립공원 보존이유 허가 취소

작년 12월 경상북도가 허가한 가야산 골프장 건설사업이 취소될 전망이다.

문화체육부 행정심판위는 지난 5일 '골프장 건설반대 고령·덕곡 투쟁위'가 4월에 낸 골프장 건설 관련 행정심판청구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건설허가 취소결정을 내렸다.

문체부 법무담당관은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이 일반화되어있지 않고 국민정서상으로도 맞지 않으며 생태계 파괴의 우려가 커 취소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며 "지난 6월 입법예고된 자연공원내 골프·스키장 건설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연공원법 개정안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친것 같다"고 취소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형식상의 절차라 할 수 있는 문체부장관의 최종승인이 내려지면 심판위의 결정은 효력을 발하게 되며 경북도는 이에 기속되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한편 문체부 발표이후 해인사대책위, 종단대책위등 6개 대책위원회 소속회원 20여명은 10일 대구환경운동연합회 회의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심판위결정에 따른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공동대책위는 앞으로 도지사 방문, 청와대에 진정서 발부, 지속적 서명운동, 사회저명인사 1백인 공동기자회견 등을 통해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을 계속할 방침이다.

종단협 기구 확대 개편

부회장·주무이사등 임원진 보강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스님)는 지난 10일 남산 동보성에서 회장단 회의를 갖고 정관개정에 따른 임원진을 보강했다.

기존의 서봉(태고종) 운덕(천태종) 락혜(진각종) 통리원장등 3명의 부회장외에 월서·지하(조계종) 홍파(관음종)스님이 추가되고, 이사로 월서·지하·법타·시현(조계종) 자월(태고종) 도원(천태종) 덕혜(진각종) 정사 등이 추가됐다.

한편 사무총장은 공석으로 둔 채 시현·자월·도원스님이 주무이사로서 사무총장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남북종교인 대회 개최전망 불투명

오는 8월로 예정된 남북종교인대회 개최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종교인협의회 법안스님(실천승가회)등 4명의 실무단은 남북종교인대회의 9월 개최와 구체적 일정, 장소등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북경을 방문했으나 북측과 접촉이 이루어지지않아 9월 개최도 쉽지않을 전망이다.



장마비 헤치며 통일염원 생명과 평화에의 제종교 통일염원 합동국토순례단이 지난 5일 광주 증심사에서 발대식을 갖고 22일간의 대장정에 올랐다. 순례단은 중부지방을 거쳐 판문점을 찾은후 다시 서울까지 이어지는 도보순례를 계속한다. 사진은 지난 13일 공주-마곡사간 순례구간을 걷고있는 22명의 순례단.

청교련, 하계 극기수련대회

교양강의·외국인과 대화등…28~31일 속리산서

세계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박현성)가 '95 전국 청소년 하계극기수련회'를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개최한다.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21세기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세계적 감각을 익히도록 하기 위한 이번 수련대회는 일반 캠프형식을 가미한 불교수련회로 대자연속에서 호연지기의 기상과 건전한 불교정서를 함양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중·고등학생 1백50여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만남의 시간등으로 구성된 과정프로그램과 심성계발, 교양강의, 외국인과의 대화등의 교양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탈춤체조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세계각국의 의상 만들어보기 등 외국문화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도 알차게 준비된다.

특히 이번 수련대회에는 주한 미국·독일·프랑스 청소년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어서 미래불교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 불자들에게 문화개방에 따른 이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청교련의 김남녀 간사는 "조별활동을 통한 서로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청소년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원스님등 해외유학승 18명

조계종, 2백만원씩 장학금

조계종 교육원은 해외유학승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도원스님(미국, 불교학 전공)등 해외에서 공부하는 유학승 장학생 18명이며 1인당 2백만원씩 지급된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해외 유학승 장학금 지급은 아시아 14명 미주 3명 구주 1명등 총 18명이며 1인당 2백만원씩 지급된다.

한편 교육원은 승가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관련 논문 자료집을 발간한다. 이와함께 교육에 관한 간담회도 계속 개최키로 했다.

구독신청: 737-0693

석왕사, 복지관 위탁운영

10월경 개관…복지사·자원봉사자 모집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가 지난 1일 부천시로부터 덕유마을사회복지관(부천시 원미구 중동신도시 덕유마을단지내)을 위탁 운영받았다.

지하 1층 지상 2층 총 건축면적 2백38평 규모의 덕유마을 사회복지관은 영담스님을 관장으로 아동 및 청소년, 가정, 노인, 장애인 및 지역복지사업을 통해 중동 신도시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게 된다.

개관식은 올 10월경에 가질 예정이며 현재 복지관을 운영해 갈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등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찰음식 연구회 창립

천태종 삼광사, 지난 15일

천태종 삼광사(주지 춘광)는 지난 15일 법화삼매당에서 불교전통 요리연구보존회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동회는 잊혀져가는 사찰 전통요리를 발췌, 계승하고 그의 연구개발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일정·교재등 토의

행자교육원 교수회의

오는 8월14일~9월6일에 실시될 제9기 조계종 행자교육원을 위한 교수임원회의가 지난 10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개최, 교수임원 선정, 교육일정, 교재검토등 행자교육원 개설을 위한 전반적인 토의를 가졌다.

한 사찰에서 6개월 이상 있은 행자에게만 피교육 자격을 부여키로 하는 한편 이번에도 교육원에서 제작 배포한 만의를 사미계 수계시 필수적으로 착용토록 했다.

20일 주요사찰 사무장 교육

조계종 교구본사 및 주요사찰 사무장 교육이 오는 20일 9시부터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실시된다.

교구본사를 비롯 관람료사찰과 직영 및 특별분담사찰에서 1백여명의 사무장이 참석하게 될 이번 교육은 개정된 종헌 종법 안내와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 및 부서별 종무행정 지침시달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내달말 본사 포교국장 연수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11일 불교회관 1층에서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를 열고 제2차 전국 교구본사 포교국장단 연수를 오는 8월 29, 30일 직지사에서 개최키로 했다.

16개 교구본사 포교국장이 참석한 이날 불교교양대 등록, 포교사고시 실시등 포교원 하반기 사업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실상선원 아미타불 점안 법회

서울 중곡동 소재 실상선원(원장 정현)은 지난 12일 아미타부처님 점안법화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점안한 실상선원 불상은 높이 3m15㎝ 무게 1톤의 청동불상이다.

이날 점안법회에는 불자연예인과 부천 석왕사 사물놀이패가 동참, 공연을 펼쳤다.

청교련 악물남용 예방캠페인

청교련 인천지부(지부장 선일)는 지난 14일 부평시장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및 약물남용 예방 캠페인'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운영위원과 청교련 회원을 중심으로 마련된 이날 캠페인에는 2백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석, 가장행렬과 함께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고은 초청법회 '성황'

본사 부산지사 개소기념

고은(본사 논설고문)씨 초청 본사 부산지사(지사장 이종판) 개소기념 대중법회가 지난 11일 동구 범일동 소재 지사 강당에서 개최됐다.

3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고은씨는 "불법의 대요는 살아있음과 죽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사의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진리의 실천"이라 전제하고 "그러나 그 진리는 관념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불교 성지 순례

실크로드 대장정 23일
-중국 불교유적지와 간다라 불교유적-
· 출 발 : 7월 24일, 8월 28일
· 동참금 : 295만원
· 일 정 : 서울-북경-서안-난주-가욕관-돈황-투르판-우룸치-카슈가르-쿤자랍고개-훈자-길기트-스왓-페샤와르-탁실라-이슬라마바드-라호르-방콕-서울

실크로드 불교유적지 11일
· 출 발 : 7월 21일, 8월 25일
· 동참금 : 188만원
· 일 정 :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벳·네팔 9일
· 출 발 : 7월 23일, 8월 27일
· 동참금 : 210만원
· 일 정 : 서울-상해-성도-라사-장쩨-시가체-라사-카트만두-방콕-서울

스리랑카 캔디 불치제 6일
-스리랑카 최대의 불교 축제 캔디 페라헤라·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 출 발 : 8월 4일
· 동참금 : 118만원
· 일 정 :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덤불라-캔디(불치사)-콜롬보-서울

중국불교유적지 13일
· 출 발 : 8월 29일, 9월 19일
· 동참금 : 195만원
· 일 정 :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숭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백두산 연길 북경 5일
· 출 발 : 7월 29일, 8월 19일
· 동참금 : 100만원
· 일 정 :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 보로부두르 사원-
· 출 발 : 7월 23일, 8월 27일
· 동참금 : 95만원

대 만 5일
· 출 발 : 8월 20일, 9월 20일
· 동참금 : 65만원

■ 여행조건 ●호텔:특급 및 1급,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 ●최소 출발인원: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 (代)

삼풍백화점 참사현장 인간승리의 드라마

"기다리면 구해주겠지" 어머님 생각뿐

유지환양

최명석군

'새로 태어난 두 생명'



◇ 죽음의 문턱에서 9일 극적으로 구출된 최명석군과 이를 뒤인 11일 생환한 유지환양은 병상에 나란히 누워 손을 맞잡았다.

어머니 법당찾아 무사생환 간절히 기도
'285시간 지옥' 믿음으로 극복한 신세대

7월 11일 오후 3시 29분. 매몰 285시간만에 지하 1층에서 유지환양이 살아나왔을 때 엄마 정광임 보살(48세)은 공만갚았다.

지난 4월초파일 화계사에 등불을 밝히며 남편의 회복과 아들 세 열이와 딸 지환이를 위해 기도했던 일들이 떠올랐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입원한 뒤로 평소 다니던 화계사도 거의 가보지 못했지만 늘 마음으로 부처님께 의지하던 그였다.

4년째 뇌졸증으로 입원중인 남편 간호에 늘 바쁜 정보살이었고, 그런 집안살림에 보탬이 되려 일찌감치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환이었다.

"내딸은 살아있다"확신

사고가 나던 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딸이 다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정보살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장에 도착했지만 딸의 모습은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다. 막막했다. '아니야 어딘가에 꼭 살아 있을꺼야' 마음 속으로 딸의 생존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며 사고 당일부터 지난 11일 오후까지 삼풍백화점 현장과 서울교육대학 실종자 대책본부에 마련된 불교자원봉사연합회의 법당을 오가던 모정이었다.

막내삼촌 유근배씨를 비롯 고모와 4명의 이모가 교대로 현장에서 실종된 지환양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딸의 실종소식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채 매일 정보살은 저녁때까지 딸을 찾아 이곳 저곳을 헤매었고, 저녁이면 병석의 남편 곁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는 듯 남편을 대했다.

그렇게 열하루가 지나고 최명석이라는 청년이 구조되는 낭보가 날아들었다. 지환이가 근무하는 지하 1층에서 구조됐다는 소리에 "우리 지환이도 꼭 살아있을거야"라며 다시한번 점점 지쳐가는 자신을 곧추세우며 말했다.

그런 확신속에 드디어 11일 2시가 가까운 시간, 그날도 딸을 찾기위해 교육대학 체육관 실종자 가족들 사이에 있던 정보살은 누군가 지하에 살아있다는 뉴스를 들었다.

곧이어 이름이 확인됐다. "유지환!" 정보살은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다. 마음은 이미 지하에서 나오려 발버둥치는 딸에게로 성큼 가 있었고 옮기는 발걸음 걸음마다 지난 13일간의 초조함과 절망감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매몰 285시간만에 극적으로 딸 지환이가 지상으로 나왔다. 칠흑 암흑속에서도 '기다리면 구해주겠지'하며 어머니 생각만 했다는 지환양과 딸의 죽음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정보살. 관세음보살을 호명하며 지하에 있는 딸에게 보낸 모정불심이 딸이 최후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무언의 힘이 되었던 것이다.

무언의 힘 '관세음보살'

처음 생존소식을 듣던 순간부터 구조당시의 급박했던 상황들, 환호와 박수, 화계사 부처님의 인자하신 모습….

모든 것들이 지난 기억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저 딸 지환이가 살았다는 기쁨만이 엄마 정광임보살의 눈앞을 적시고 있었다.



"인연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온 아들·딸을 둔 두 어머니는 기쁨을 나누며 서로 껴안았다. 사진 왼쪽부터 유양의 어머니 정광임씨, 최군의 어머니 전인자씨.

가족 20명 구조현장서 헌신적 봉사 활동
"실종자에 미안…평범한 젊은이로 살고파"

"힘드시죠. 음료수라도 갖다드릴까요? 필요한 장비는 없으세요?"

구슬땀을 쏟아내며 지난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실종된 아들 최명석군이 꼭 살아있을거라 믿으며 아버지 최봉열씨, 어머니 전인자씨, 작은 아버지 최봉용씨 등 20여명의 가족과 친지가 사고현장에서 분주하게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었다.

어려운 이웃 외면 못해

대부분의 실종자 가족들이 사고의 충격으로 오열하며 자신조차 추스리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속에 구조현장을 누비며 구조대원들과 함께 콘크리트 더미를 헤치기도 했던 아버지 최봉열씨(51세)와 작은아버지 최봉용씨(48세)는 한순간도 아들이 살아있을 거란 믿음을 잃지 않았다. 시체가 발굴돼 실려나갈 때면 처참한 마음에 '옴 마니반메훔'을 외우기도 하면서 서로를 격려했다. 대대로 불자집안인 최명석군의 가족은 어려서부터 정의심이 강하고 어려운 이들을 보면 지나치지 않던 할아버지 최이남씨(79세)와 할머니 최점순(72세)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 그래서 이번 사고에도 온가족이 일심으로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구조현장으로 달려가 열정적인 구조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이다. 손자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금룡사 부처님께 손자가 살아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구조현장에 나선 가족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런 가족의 정성을 부처님이 감응하시기라도 한 듯,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발생 11일째를 맞은 지난 9일 장마비로 흥건하게 젖은 일요일 아침, 최봉열씨 가족들에게 무지개빛 소식이 전해졌다.

금룡사 부처님께 기도

2시간여의 구조작업끝에 상처하나 없는 명석이의 상반신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족도 구조대도 나머지 실종자가족들도 숨을 죽인 몇초. 실로 감격적인 기적의 순간이었다.

최군의 아버지는 구조현장과 병원에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주는 이웃들의 성원을 받으며 '우리와 함께 기뻐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너와 내가 하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이웃들 또한 우리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는 건강하게 살아 부모의 품으로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소신껏 있는 그대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제일 큰 보시라는 사실을 명석군의 가족은 다시금 깨달았다.

지난 11일 285시간만에 구조된 유지환양의 어머니를 중환자실 앞에서 만난 최명석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 자식만 살아나와 송구스럽고 부담스러웠는데 유지환양이 살아 나와 한집 덜었다. 정말 축하한다"면서 "우리 명석이가 살아나왔을 땐 꿈만 같았는데 오늘은 정말 날아갈 것 같다"고 말하며 미소지었다.

이은자 기자

영어로 배우는 경전 — 숫타니파타 ③

♦ He who did not go too fast forward, nor was left behind, being free from hatred, seeing that all this is false, that Bhikkhu leaves this and the further shore, as a snake quits its old worn out skin.

앞으로 너무 빨리 가지도, 뒤처지지도 않고, 이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아 미움에서 자유로와진 수행자는 차안과 피안을 떠난다. 뱀이 제 낡은 허물을 벗듯.

♦ He who did not go too fast forward, nor was left behind, being free from folly, seeing that all this is false, that Bhikkhu leaves this and the further shore, as a snake quits its old worn out skin.

앞으로 너무 빨리 가지도, 뒤처지지도 않고, 이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아 어리석음에서 자유로와진 수행자는 차안과 피안은 떠난다, 뱀이 제 낡은 허물을 벗듯.

♦ He to whom there are no affections whatsoever, whose sins are extirpated from the root, that Bhikkhu leaves this and the further shore, as a snake quits its old worn out skin.

어떤 애착도 없이 죄를 뿌리째 뽑아버린 수행자는 차안과 피안을 떠난다. 뱀이 제 낡은 허물을 벗듯.

♦ He to whom there are no sins whatsoever originating in fear, which are the causes of coming back to this shore, that bhikkhu leaves this and the further shore, as a snake quits its old worn out skin.

이 세상으로 돌아올 원인이 되는, 두려움에서 생기는 어떤 번뇌도 없는 수행자는 차안과 피안을 떠난다. 뱀이 제 낡은 허물을 벗듯.

♦ He to whom there are no sins whatsoever originating in desire, which are the causes of binding men to existence, that Bhikkhu leaves this and the further shore, as a snake quits its old worn out sk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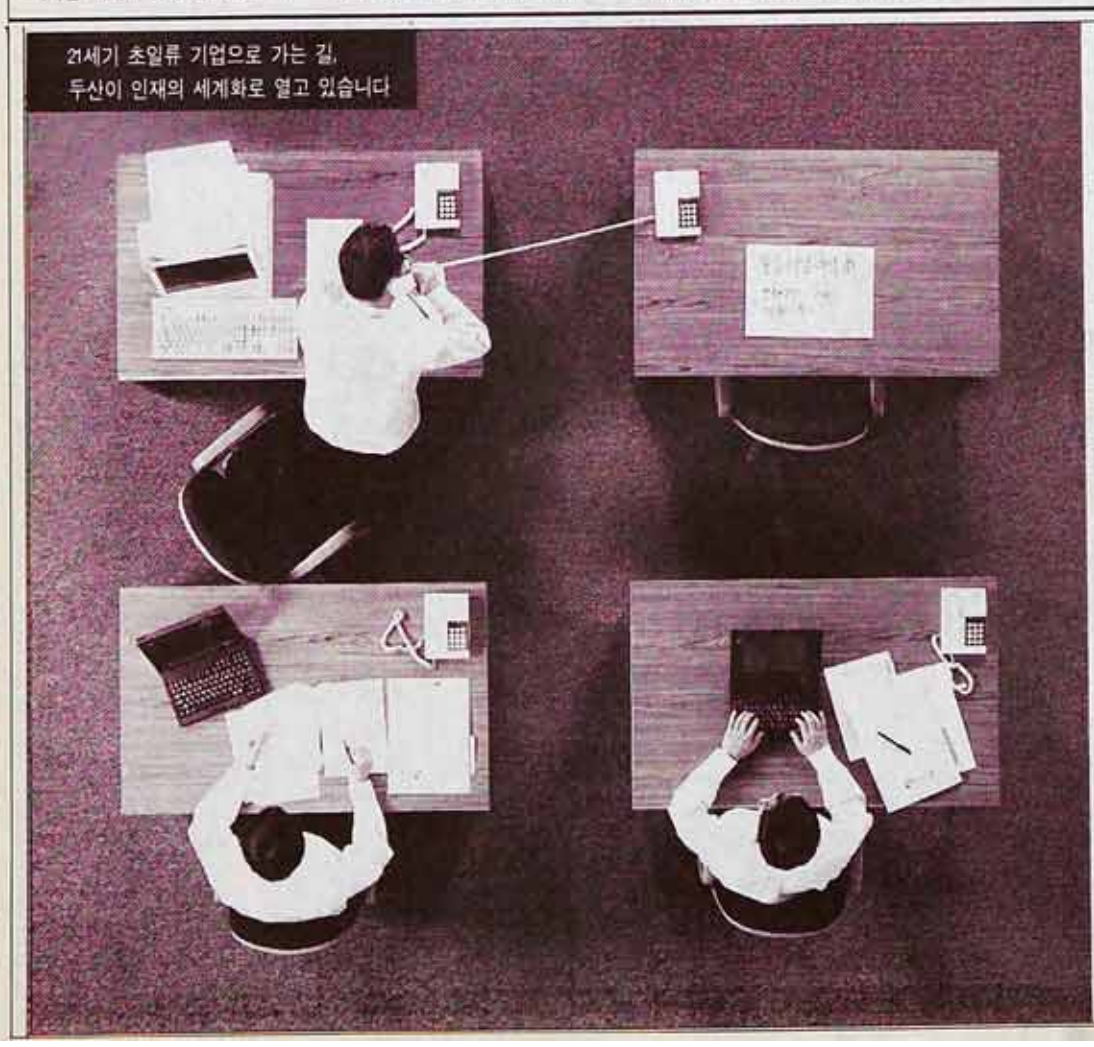
사람을 생존에 묶는 원인이 되는, 욕망에서 생기는 어떤 번뇌도 없는 수행자는 차안과 피안을 떠난다. 뱀이 제 낡은 허물을 벗듯.

♦ He who, having left the five obstacles, is free from suffering, has overcome doubt, and is without pain, that Bhikkhu leaves this and the further shore, as a snake quits its old worn out skin.

다섯가지 장애를 떠나 고통에서 자유롭고 의심을 극복하였으며 고뇌가 없는 수행자는 차안과 피안을 떠난다. 뱀이 제 낡은 허물을 벗듯.

한명우 기자

◇ '주부신행담' -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입니다.



인재로 이어온 100년
일류로 나아갈 100년

"지금, 배낭여행중입니다"

두산의 사원 500명이 「해외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인재 세계화의 새로운 길, 국내 최초의 사원 배낭여행으로 엽니다

세계화된 기업만이 21세기 초일류 기업-
두산은 인재의 세계화를 통해서 기업 세계화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을 창의적으로 파악하도록 업계 최초로
실시하는 사원 배낭여행은 인재 세계화의 한 과정입니다.
국내외 장기 어학연수, 전문기관 위탁교육,
해외지점의 현지인 운영체제, 외국인 전문가 채용까지-
세계화의 길은 과감한 투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전통100년 도전100년 두산